

# 2021 방문 조사 결과보고서

-학생자치 실태조사: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중심으로-

2021. 12.



차

제1절 조사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1
제3절 조사 방법 .....	2

제1절 학교 방문 조사 결과 .....4

제2절 학생 설문 조사 결과 .....6

제1절 조사 결과 요약 .....15

제2절 2021 방문조사 결과와 2021학년도 학생자치 현황조사 결과 비교 ..18

제3절 제언 ..... 22

〔부록 1〕 학생 설문지 .....26

〔부록 2〕 학생 설문 응답 내용 .....31

# 제1장 조사개요

## 제1절 조사 배경과 목적

2021 방문 조사는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자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 한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학생자치 정책 수립, 학생자치 예산 집행 방안 마련 등 자치와 참여가 실현되는 인권 우호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2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절은 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보장하고 있다.

### 1. 제18조(자치 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 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2. 제19조(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 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 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3절 조사 방법

### 1. 조사 범위

- 학생자치 시수 확보 현황(교육과정 내 편성 시수와 교육과정 외 시수)
- 학생회실 운영 실태(학생회실의 접근성, 독립성, 개방성 등)
- 학생회 운영 실태
  - 학생회 운영(예산포함) 계획과 실제 운영 현황
  - 학생회 운영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 여부
  - 학생회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점 등
-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현황
  - 학생회 예산 1% 확보 여부
  - 학생회 예산 편성 내역
  - 학생회 예산 집행 방법 등
- 학생 참여의 권리 확보
  -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현황
  - 학생 대표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현황 등

## 2. 조사 근거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 3. 조사 방법

1) 조사 기간 : 2021. 9. 1.(수) ~ 9. 30.(목)

### 2) 조사단 구성

○ 근거: 2021. 7. 23.(금)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조사단) 구성

- 방문조사단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1명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3명, 인권 강사와 학부모 5명(총 8명)

순	이름	소속	직위	비고
1	O길O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조사단장
2	O재O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
3	O정O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
4	O재O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강사	-
5	O은O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강사	-
6	O은O	-	학부모	-
7	O지O	-	학부모	-
8	O재O	-	학부모	-
9	윤석연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방문 조사 총괄
10	문승연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방문 조사 담당
11	이용희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	행정지원
12	최규하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자문
13	하늘빛	학생인권교육센터	교 사	자문

### 3) 조사 방법

○ 조사 대상: 도내 지역별 중학교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40개교 선정

○ 조사 방법: 방문 조사(설문 조사, 면담 조사)

- 학생자치 담당 교사
- 학생(학생회 활동 참여 학생과 활동 미참여 학생 5:5 비율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성)

○ 조사 일정: 조사단(2인 1조로 구성)이 선정 학교(조별 10개교)에 연락하여 관리자와 일정 협의

#### 4) 조사 대상

- 지역별 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도내 중학교 40개 교 선정

〈표 1〉 방문 조사 대상 학교<sup>1)</sup>

학교급	유형	학교 수	백분율(%)
중학교	공립	23	57.5
	사립	17	42.5
계		40	100

## 제2장 조사 결과

### 제1절 학교 방문 조사 결과

#### 1. 학생자치 시수 확보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교의 학생자치 시수 확보 현황을 보면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7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자치는 1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학교 중 70%의 학교가 10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10%의 학교는 학생자치 시수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생자치 시수 확보 현황

시수	학교 수(%)
0	4(10.0)
1~9	8(20.0)
10 이상	28(70.0)

#### 2. 학생회실 설치<sup>2)</sup>

조사 결과, 학생회실은 조사 대상 학교의 82.5%인 33개교에 설치되어 있었다. 학생회실이 설치된 학교를

1) 이 조사의 목적은 정책적 대안 모색이므로 학교명을 기재하면 자칫 해당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학교명을 생략함.  
2) 학교 학생회실 설치는 2013년부터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현재 도내 770개 학교 중 483개(62.72%) 학교에 학생회실이 있음.

대상으로 학생회실의 접근성, 독립성,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생회실 설치

학생회실 설치		접근성			독립성			개방성		
		좋음 (%)	보통 (%)	부족 (%)	좋음 (%)	보통 (%)	부족 (%)	좋음 (%)	보통 (%)	부족 (%)
유(%)	33(82.5)	21 (63.6)	2 (6.1)	10 (30.3)	8 (24.2)	2 (6.1)	23 (69.6)	6 (18.2)	19 (57.6)	8 (24.2)
무(%)	7(17.5)	-								

### 3. 학생회 운영 실태

조사 대상 학교의 학생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회 운영 계획서, 학생회 추진실적, 학생회 운영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학생회 운영 실태

	학생회 운영 계획서	학생회 추진실적	학생회 운영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
유(%)	80.2	82.5	82.5	85.0	85.0
무(%)	20.0	17.5	17.5	15.0	15.0

### 4.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현황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 학교의 학생회 예산 1% 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 전체가 1% 이상 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더니, 조사 대상 학교의 70%가 사업별 품의 요구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고, 7.5%의 학교가 학생 대표 통장으로 입금하여 학생회가 예산을 독립적으로(자율적) 운영하고 있었다.

〈표 5〉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현황

방법	학생 대표 통장	담당 교사 개산급	사업별 품의 요구
응답 학교 수(%)	3(7.5)	9(22.5)	28(70.0)

### 5. 학생의 참여 권리 확보 현황

학생의 참여 권리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현황과 운영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90%인 36개 학교가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이 중 12개 학교만이 실제 학생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학생의 참여 권리 1

조사 대상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현황(위원회 구성)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운영(내부기안)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운영(회의록)	
학교	유(%)	36(90)	유(%)	19(52.8)	유(%)	12(65.2)
					무(%)	7(36.8)
			무(%)	17(47.2)	-	
	무(%)	4(10)	-		-	

학생의 참여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대표와 학교 담당자를 면담 조사한 결과 응답 내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학생 면담 결과, 교무회의에 학생 대표가 참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0개교 중 7개교이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0개교 중 8개교였다. 학교 담당자는 40개교 중 10개교가 교무회의에 학생 대표가 참석한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는 11개교에서 학생 대표가 참석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7〉 학생의 참여 권리 2

조사 대상	학생대표참석	교무회의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여(%)	7(17.5)	8(20)
	부(%)	33(82.5)	32(80)
담당자	여(%)	10(25.0)	11(27.5)
	부(%)	30(75.0)	29(72.5)

## 제2절 학생 설문 조사 결과

학생에게 학생자치 실태를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각 학교당 10명 이상을 선정하여 총 400명으로 하

였으며, 설문 내용은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일반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조사 대상 일반 현황

구분	지역														성별		학년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남	여	1	2	3
학생수	20	40	20	30	10	20	20	20	50	20	10	80	40	20	223	177	32	80	288
비율(%)	5	10	5	15	2.5	5	5	5	12.5	5	2.5	20	10	5	60.75	39.25	8.0	20.0	72.0

### 1. 학생자치 경험과 참여 의식

학생의 학생자치 경험과 참여 의식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조사 대상 중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60.5%, 경험이 없는 학생은 39.5%로 나타났다.

응답 성별	있다(%)	없다(%)	합(%)
남	52.9	47.1	100
여	60.1	39.9	100
전체	60.5	39.5	100

1-2. 학교의 학생자치(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6.0%가 ‘그렇다’ , 14%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그렇다	아니다	합
전체	86.0%	14.0%	100%

1-3. 학교의 학생자치(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42.2%의 학생이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을 계획하여 진행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생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한다.	15.5
2	학생회가 학생회 회의 결과와 학생회 활동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18.0
3	학생회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학생회 활동을 한다.	23.4
4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을 계획하여 진행한다.	42.2
5	기타 (학생회가 모여 청소 시간에 학교를 깨끗이 청소한다. 교내 모든 학교의 활동을 학생회와 동아리 부원, 일반 학생 등 모든 학생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루어나간다. 등)	0.9

1-4. 학교의 학생자치(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26.2%의 학생이 ‘학생회가 학생회 회의 결과와 학생회 활동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생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하지 않는다.	9.8
2	학생회가 학생회 회의 결과와 학생회 활동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26.2
3	학생회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16.4
4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을 계획하여 진행하지 않는다.	14.8
5	기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학생회장단이 하는 일이 없다. 행사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아서 학생회 내에서 학생회 임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 학생회 임원이 각 반의 실장, 부실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제약받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학생회 활동에 제약이 너무 많다. 학생회가 뭘 하는지 모른다. 선생님들의 압박이 약간 있는 것 같다.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의의 결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 선생님께 회의내용을 전달할 때 의견 갈등이 생긴다. 학생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회가 소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명의 인원들이 참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회 임원이 많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32.8

1-5.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학생회실)에 만족하는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79.8%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그렇다	아니다	합
전체	79.8%	20.2%	100%

1-6.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학생회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81명(전체 응답자의 20.2%)의 학생에게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학생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고 35명(43.2%)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생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43.2
2	학생회실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3.7
3	학생회실에 학생자치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하다.	35.8
4	학생회실을 개방하지 않아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	7.4
5	기타(학생회실이 좁다. 학생회실을 개방하고 있어 일반 학생들의 출입이 잦아 기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책상이 부실하고 보드 판이 자주 떨어진다. 학생부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선생님들이 잠글 때가 있다.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앉을 공간이 부족해 학생부와 실장들이 다 앉지 못한다.)	9.9

1-7.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자치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는데, 학교 기본운영비의 1%가 학생자치 예산으로 충분한지를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72.2%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그렇다(%)	아니다(%)	합(%)
전체	72.2	27.8	100

1-8. 학생자치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9.2%의 학생이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그렇다(%)	아니다(%)	합(%)
전체	20.8	79.2	100

1-9. 학생자치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9.2%(317명)의 학생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응답자의 73.5%의 학생이 ‘학생자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른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생자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른다.	73.5
2	학생자치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심의하고 감시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12.0
3	학생자치 예산을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	12.0
4	기타(학생자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예산 사용 과정에 심의, 감시과정이 부족하고 학생들 요구나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2.5

1-10. 학생회가 직접 학생자치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79.3%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그렇다(%)	아니다(%)	합(%)
전체	79.3	20.7	100

1-11.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79.3%(257명)의 학생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응답자의 67.3%의 학생이 ‘학생들이 스스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 질문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62.6
2	학생들이 스스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67.3
3	학생자치 활동 계획과 행사를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57.6
4	학생자치의 권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므로 학생회가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29.9
5	기타(선생님들의 주도로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총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돈인데 학생들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은 곳에 사용된다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학생자치 예산이 줄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므로 학생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이야말로 학교의 문제점과 필요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6

1-12.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83명의 학생에게 학생자치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질문하였더니, 응답자의 73.0%의 학생이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	73.3
2	교장, 교감 선생님	16.7
3	기타( 학생회장, 부회장, 학생회 임원들, 학생들과 담임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회 임원, 행정실 선생님)	10.0

1-13. 학교는 학생회 운영 규정과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게시하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46.8%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	합(%)
전체	46.8	12.0	41.2	100

1-14.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고 운영하는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63.0%의 학생이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그렇다(%)	아니다(%)	합(%)
전체	37.0	63.0	100

1-15.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고 운영한다고 응답한 전체 응답자의 37.0%의 학생에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동아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	응답 내용
운동	배구, 축구, 농구, 피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씨름, 넷 볼, 플로어 볼, 스포츠클럽, 국궁, 마라톤
예술	밴드, 댄스, 미술, 영화, 연극, 위샵, 찬송, 록 밴드, 네일, 애니메이션, 오케스트라, 우쿨렐레, 플루트, 뜨개질, 목공, 그림, 요리, 힙합, 방송, 뮤지컬, 디자인, 만화, 바리스타, 제과제빵
독서	동화책, 독서토론, 책방
학습	과학, 역사, 코딩, 미래과학 창작, 컴퓨터

2-1.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81.0%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렇다(%)	아니다(%)	합(%)
81.0	19.0	100

2-2.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81.0%(324명)의 학생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응답자 50.0%의 학생이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교 수업과 평가에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다.	8.6
2	학교를 함께 이끌어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존중한다.	23.5
3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50.0
4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고 교육을 한다.	17.3
5	기타(학급 회의를 통해 필요한 요구를 반영한다. 학교생활 규정 반영 등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0.6

2-3.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6명의 학생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응답자 50.0%의 학생이 ‘학교 수업과 평가에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교 수업과 평가에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50.0
2	학교를 함께 이끌어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다.	9.2
3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21.1
4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받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10.5
5	기타(학생 대표가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학생들의 요구가 잘 반영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에 대해 제한을 둔다. 학생회 임원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은 의견을 내기 힘들다. 활동을 안내받은 적은 있지만, 횟수는 적다. 학생들의 참여 자세가 부족하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받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다. 아직 참여해 본 적이 없다.)	9.2

2-4. 학교에서 학생자치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68.8% 학생이 ‘정기적인 학급 회의나 학년 회의’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정기적인 학급 회의나 학년 회의	68.8
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 교육	12.0
3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특색활동	11.0
4	기타(참여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회의를 통해 학교행사나 여러 가지 체험과정을 정하는 회의를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회의를 한다. 행사계획을 주로 한다. 불편 사항들을 모아 학생회에서 회의한다. 추진하고 있는 행사에 관한 것이나 총학생회 친구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집한다.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조사하여 회의한다. 각자 반에서 휴대전화를 한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개인적 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 청소 또는 교육 영상 시청, 부정기적인 학급 회의와 학생회 회의, 생일파티, 예산관리, 흡연 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 선생님들 과목 진도나 안전 교육, 또는 외부 강사의 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럴 시간이 없다. 학생자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학교에서 배정한 시간은 없다. 주로 점심시간에 학생 자체 활동을 진행한다. 학생자치 시간이 없다. 자습 또는 자율공부를 한다. 가끔 학급 회의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다.)	8.2

2-5. 학교에서 교사나 외부 강사에게 학생자치(학생 참여, 시민교육, 학생회 활동 등)를 주제로 교육이나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54.0% 학생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있다(%)	아니다(%)	합(%)
54.0	46.0	100

2-6. 학생자치 활동 중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영역을 모두 표하도록(복수 응답 가능) 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63.5%의 학생이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급식, 현장 체험 학습 등 생활 운영’ 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학생 대표의 교무회의(교직원 회의) 참석	29.3
2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23.5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 교육	22.0
4	학생들의 참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학교 공동체의 의식 개선	26.8
5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급식, 현장 체험 학습 등 생활 운영	58.3

6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축제, 캠페인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63.5
7	기타(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을 학교 대표로 교육청에 가서 받은 적이 있고, 그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 동아리를 개설하였다. 잘 모르겠다. 2학년 의견을 반영하였다.)	1.3

3-1. 모든 학생이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77.8%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그렇다	77.8
2	아니다	17.2
3	기타(학생회 대표 선출 방법을 모르겠다. 3학년은 투표하지 못한다. 1학년은 투표하지 못한다. 2학년과 3학년만 투표한다. 등)	5.0

3-2. 학생에게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94.3%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그렇다	94.3
2	아니다	4.7
3	기타(하고 싶은 사람만 해도 된다.)	1.0

3-3. 위 3-2문항에 관한 답변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학생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당연한 권리’ 라는 응답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상세한 응답 내용은 부록 2 참조).

3-4. 학교의 모든 학생이 학생회 대표(학생회장)로 출마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74.3%의 학생이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그렇다	7.7
2	아니다	74.3
3	기타(3학년만 가능하다. 3학년이 회장, 2학년은 부회장(3명)이다. 학년별 출마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1학년은 거의 출마하지 않는다.)	1.0

3-5. 학교의 모든 학생이 학생회 대표(학생회장)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하는지 질문하였더니, 63.0%의 학생이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문항	응답 내용	응답률(%)
1	그렇다	34.5
2	아니다	63.0
3	기타(가장 높은 학년이 학교의 상황도 잘 알고 있으므로 3학년이 하면 적절할 것 같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다닌 학생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2, 3학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학년별로 나누어서 대표로 출마하여 선출하면 좋을 것 같다. 회장은 면접을 통해 선출하면 좋겠다.)	2.5

3-6. 위 3-5문항과 같이 응답한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1학년이 학생 대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응답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상세한 응답 내용은 부록 2 참조).

4-1. 학생에게 ‘학생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응답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상세한 응답 내용은 부록 2 참조).

4-2. 향후 학생자치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라는 응답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상세한 응답 내용은 부록 2 참조).

## 제3장 조사 결과와 제언

### 제1절 조사 결과 요약

2021 방문 조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5조 제1항 3호 내지 4호 등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자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범위는 2021년 학생자치 시수 확보 현황, 학생회실 운영 실태, 학생회 운영 실태,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현황, 학생 참여의 권리 확보 현황 등이다. 조사 대상은 도내 중학교 중 무작위로 40개교를 선정하였고, 학교마다 10명씩 총 400명의 학생과 자치 담당 교사를 면담하고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 시수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40개 학교 중 28개교(70%)가 10시간 이상 학생자치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교(10%)는 학생자치 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학생회실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 중 33개교(82.5%)가 학생회실을 설치하였고, 7개교(17.5%)는 학생회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33개교의 학생회실을 접근성, 독립성, 개방성 3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21개교는 접근성, 8개교는 독립성, 6개교는 개방성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학생회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 비치된 학생회 운영 계획서, 학생회 추진실적, 학생회 운영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80.2% 학교가 학생회 운영 계획서를 비치하였고, 82.5% 학교에서 학생회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중 82.5% 학교가 학생회 운영 규정을, 85.0%의 학교가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학생회실에 게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가 학생회장 당선증을 교부하는가를 확인한 결과 조사 대상 중 85.0% 학교가 당선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0% 학교는 당선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회 예산 편성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의 학생회 예산 1% 편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가 모두(100%) 학생회 예산으로 1%를 편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회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본 결과, 학생 대표 통장으로 집행하는 학교는 7.5%, 담당 교사 개산급은 22.5%, 사업별로 품의하는 학교는 70.0%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의 참여 권리 확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담당 교사를 면담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중 36개교의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가 학생 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중 학생 위원이 실제 위원회에 참석하는 학교는 12개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생의 참여 권리가 실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교사와 학생 대표를 면담한 결과, 학생은 교무회의에 7개교, 학교운영위원회에 8개교에서 학생 대표가 참석한다고 응답하였고, 담당 교사는 교무회의에 10개교, 학교운영위원회에 11개교에서 학생 대표가 참석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과 담당 교사의 응답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학교가 조사 대상 중 30개교(75.0%) 이상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학교도 29개교(7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게 학생자치 실태조사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 조사 대상 학생 선정 때 학생자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비율을 5:5로 요청하였으나, 실제 조사 대상자는 학생자치 유경험자 60.5%, 무경험자 39.5%로 나타났다.

#### 1) 학생자치 경험과 참여 의식

학생에게 학생자치 활동에 관해 질문하였다. 조사 대상 중 86.0% 학생이 학생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을 계획하여 진행’ 하기 때문이라고 42.2% 학생이 응답하였다. 반면, 조사 대상 중 14.0% 학생은 학생 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그 이유를 26.2%의 학생이 ‘학생회가 학생회 회의 결과와 학생회 활동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학생회실에 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20.2% 학생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학생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43.2%).’, ‘학생회실에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하다(35.8).’ 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자치 예산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의 1%가 충분한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의 72.2%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자치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0.8%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79.2% 학생은 ‘아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아니다’ 라고 응답한 학생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3.5%의 학생이 ‘학생자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른다.’ 라고 응답하였다.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체 응답자의 79.3%(317명) 학생이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학생이 스스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응답이 67.3%로 나타났다.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20.27%(83명)의 학생에게 학생자치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 질문하였더니, 응답자의 73.0%의 학생이 ‘학생자치 업무 담당 교사’ 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학생회 예산 운영 방법 응답(학생 대표 통장으로 집행 7.5%, 담당 교사 개산급 22.5%, 사업별 품의 요구 70.0%) 내용과 일치한다.

학생회 운영 규정과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게시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46.8%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학생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고 운영하는가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37.0%의 학생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학생이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동아리는 운동, 예술, 독서, 학습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2) 학생의 참여 권리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81.0%로 나타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다.’ 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0.0%로 나타났다.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9.0%의 학생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 50.0%의 학생이 ‘학교 수업과 평가에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응

답하였다.

학생에게 학생자치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을 질문하였더니, 전체 응답자 68.8% 학생이 ‘정기적인 학급 회의나 학년 회의’ 라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교사나 외부 강사에게 학생자치(학생 참여, 시민교육, 학생회 활동 등)를 주제로 교육이나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전체 응답자 54.0% 학생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3.5%의 학생이 학생자치 활동 중 ‘학생의 의견을 바탕으로 급식, 현장 체험 학습 등 생활 운영’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3) 선거권

학교에서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전체 응답자 중 94.3% 학생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라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77.8%의 학생이 현재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회 대표 출마 자격은 74.3%가 모든 학생에게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63.0%는 학생회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4) 학생자치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 학생이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활동’ 을 학생자치라고 정의하였고, 학교에서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라고 상당수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 제2절 2021 방문 조사 결과와 2021학년도 학생자치 현황조사 결과 비교<sup>3)</sup>

2021 방문 조사(이하, ‘방문 조사’ 라 함) 결과와 2021학년도 학생자치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 라 함.)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방문 조사 대상이 중학교 40개교이고, 현황조사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770개교를 조사한 결과이므로 조사 결과치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자치를 위해 개선, 보완해야 할 내용이 같고 학생자치 정책 방향 또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학생자치 시수 현황

방문조사(40개교)		학생자치 현황조사(770개교)		
시수 확보 학교 수	시수 미확보 학교 수	시수 확보 학교 수	시수 미확보 학교 수	평균시수
28(70.0%)	12(30.0%)	687(89.22%)	83(10.78%)	13.94

3) 학생자치 현황조사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770개교 학생자치 담당 교사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응답, 실시함.

현황조사에 따르면, 학생자치 시수 현황은 교육청 권장 기준(초·중학교 연간 10시간 이상, 고등학교 연간 17시간 이상)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자치 권장 시수를 확보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학생자치 시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자치 시수 확보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확보율이 높았으며,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시수 확보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입시부담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한다.

## 2) 학생자치 공간 현황

방문조사(40개교)		학생자치 현황조사(770개교)	
설치 학교 수	미설치 학교 수	설치 학교 수	미설치 학교 수
33(82.5%)	7(17.5%)	483(62.72%)	287(37.28%)

학생자치 공간은 방문 조사 결과에 비해 현황조사 결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학생자치 활동 시수와 달리, 학생자치 공간(학생회실)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확보율이 높아,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자치 활동 시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학생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 3) 학생자치 예산 현황

방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학교 전체가 학생자치 예산 1%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황조사 결과는 13개 학교가 학생자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

방문조사(40개교)	학생자치 현황조사(770개교)		
1% 이상 확보 학교 수	1% 이상 확보 학교 수	1% 이상 미확보 학교 수	평균 비율
40(100%)	757(98.31%)	13(1.69%)	1.16%

현황조사에 따르면, 학생자치 예산 확보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이기는 하나 학교급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13개교가 학생자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학교 자치 예산에 대한 안내는 필요하다.

## 4) 학생자치 예산 집행 현황

학생자치 예산 집행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자치 예산 관련하여, 교육청은 2021년, 학생자치 예산 편성과 운영을 학생 대의원회(또는 학생 총회)가 심의한 후,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시범학교(초 1교, 중 3교, 고 2교)를 운영하였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 6개교 외 12개교가 자율적으로 학생회 예산을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 조사와 현

황조사 모두 사업별로 학생자치 예산을 품의 집행하는 학교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방문조사(40개교)			학생자치 현황조사(770개교)			
사업별 품의	담당 교사 개산급	학생회 대표 통장	사업별 품의	담당 교사 개산급	학생회 대표 통장	기타
28(70.0%)	9(22.5%)	3(7.5%)	665(86.1%)	79(10.3%)	18(2.3)	9(1.7%)

#### 5) 학생회 규정 현황

방문조사(40개교)			학생자치 현황조사(770개교)		
당선증 교부	학생회 운영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당선증 교부	학생회 운영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
34(85.0%)	33(82.5%)	34(85.0%)	575(74.7%)	707(91.82%)	717(93.12%)

교육청은 학교마다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두고, 선출된 학생회 대표에게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주도록 권장하고 있다. 방문 조사와 현황조사 결과 모두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한 학교의 비율이 85% 이상인 걸로 나타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된 학생회 대표에게 당선증을 주는 비율도 74.7% 이상으로 점차 학생회 선거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회 운영 규정을 마련한 학교 비율도 82.5%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학생회 운영 규정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았다.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학생회 운영 규정을 갖춘 비율이 낮은 이유는, ‘학생회’ 라는 공식 자치기구로 운영하는 사례보다 ‘다 모임’, ‘학교 두레’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는 학생회 운영 규정과 함께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도 중고등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았는데, 초등학교가 낮은 이유는 학생회 운영 규정이 중고등학교보다 낮은 이유와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 6) 학생회 선거권 현황

방문조사(400명)		학생자치 현황조사(761개교)		
선거권 보장	선거권 제한		선거권 보장	선거권 제한
311(77.8%)	89(22.2%)	초등학교(418)	252(61%)	163(39%)
		중고등학교(343)	279(81.3%)	64(18.7%)

학생회 선거권 관련하여, 방문 조사와 현황조사 결과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

년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회 대표 출마와 관련하여, 방문 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400명) 중 297명(74.3%)이 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학교가 제한한다고 응답하였고, 전체 응답자 중 252명(63.0%)의 학생은 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한 학생이 377명(94.3%)이다. 선거권은 당연한 권리이나, 학생회장 출마 자격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 스스로 나이, 학년 등을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학교가 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학생회 운영 규정 등으로 학생회장 출마 자격 등을 제한하는 결과이기도 해서 학생회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고, 학생회 선거 관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7) 학생자치 참여 현황

방문조사(40개교)		학생자치 현황조사(770개교)	
교무회의 학생 참여 <sup>4)</sup>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교무회의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10(25.0%)	11(27.5%)	217(28.2%)	227(29.5%)

학생자치 참여 현황은 방문 조사와 현황조사 결과,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황조사에 따르면,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률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초등학생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경험 부족으로 보이며, 중학생의 회의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고등학생보다 입시부담이 적고, 초등학생보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학생 위원 비율을 40% 이상 권장하고 있다. 이 위원회 학생 위원참석률을 방문 조사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학교 중 36개교(90%)가 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40%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학생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12개교로 나타난다.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석하는 비율, 실제 학교생활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참석하는 비율 등으로 보아 학생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에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 제3절 제언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 활동의 권리) ②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

4) 방문 조사에서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설문 결과는 담당 교사의 응답을 비교하였음.

영 등 학생자치 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항은 ‘학생자치조직의 권리’를 “1.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항은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고 하였고, ②항은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항은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제5조(학생회) ③항은 “학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 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이라고 명시하였다.

학생자치 활동의 권리를 조례로 보장하는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일상에서 경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학생자치 활동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 시수, 학생자치 공간, 학생자치 예산 확보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2021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자치 실현과 학생 참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생자치 시수와 학생자치 공간 확보는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학생자치 시수와 학생자치 공간은 교육청의 꾸준한 지원 등으로 점차 확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자치 시수와 학생자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존재한다.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교육청이 권장하는 학생자치 시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생자치 공간 또한 교육청의 지속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휴 공간 부족으로 학생자치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회 전용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을 마련하도록 학교에 학생자치 공간의 필요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자치 예산 또한,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하나이다.

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전라북도 학교 자치조례」에 따르면, 학생회는 학교의 자치기구로, 학생자치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학생자치 활동 예산을 심의,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학교는 학생자치 활동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자치 예산을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학생 자치기구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한다.

교육청은 학생자치 예산(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2019년부터 학교 회계 편성·운영 지침에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고, 학생자치 예산 의무 편성 지침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자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생자치 예산 집행 방법을 살펴보면, 사업별 품의로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이 높아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문 조사에서 학생자치 예산 관련한 학생 설문 조사 결과,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라는 응답 비율이 79.3%인 점으로 보아, 학생자치 예산의 성격을 학생 스스로 이해하고 있고, 학생회를 학생자치 예산을 운영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학생자치 예산 1%를 의무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예산을 실제로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 집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례로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나 스포츠클럽 상품 지급, 학생회 임원 워크숍 등 학교가 교육활동으로 편성할 예산을 학생자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즉, 학생자치 예산과 학교 교육활동 예산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학생자치 활동 역량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임원 모두가 학생자치 예산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고, 학생의 요구를 살펴 학생자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 직접 계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 대의원회(또는 학생 총회) 역할을 제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학생회가 학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에 학생 자치 활동(사업)과 학생자치 예산 집행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대의원회는 학생회를 견제, 감시하는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학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자치 기구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학생자치 예산을 학생회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사업별 품의가 아닌 담당 교사 개산급 지급 방법 또는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지급 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향후, 학생자치 예산을 학생회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담당 교사 개산급 지급을 지속해서 권장하는 한편,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2021 학생자치 예산 시범운영 학교와 현황조사로 파악된 6개 학교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학생자치 예산을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지급하였을 때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시범학교 경험을 점차 확산시켜가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에서 선거권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학생회 선거권은 학생자치 영역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따라서 학생자치 활동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 조직인 학생회를 구성하는 선거 단계에서부터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자치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현황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60% 이상의 학교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중학교 21%, 고등학교 14.3%

학교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방문 조사(학생 설문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0명 중 377명(94.3%)이 선거권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하였으나, 400명 중 138명(34.5%)만 “모든 학생이 학생회 대표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하면 선거권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나 학생회 대표 자격은 학년(나이) 등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두 조사로 나타난 학생자치 선거 인식은 선거권이나 학생회 대표 자격을 학년(나이)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관련한 학생 설문에서 드러나듯이 학생 스스로가 “경험과 능력”을 학년(나이)으로 인식하는 서열 문화가 학교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회 대표 자격을 성적, 징계받은 사실 등의 이유보다도 ‘학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와 학생 사이에 자리 잡은 서열 문화의 반영이라 할 수 있고, 선거권 또는 학생회 대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선거를 통해 학교에 자리 잡은 서열 문화를 점차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선거권 또는 학생회 대표 자격 제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학교의 학생회 규정(또는 선거관리 규정)의 제한 규정이라 할 수 있어, 학생회 규정(또는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학생회 대표에게 임명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발급하는 등 선거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듯이, 학생자치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학생이 모두 여 하한의 제한 없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자치 실현의 주체이다. 따라서, 선거권 또는 학생 대표 자격 제한 등은 ‘학생자치’와 모순될 뿐 아니라, ‘학생자치’ 실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넷째,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는 학생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전라북도 학교 자치조례」 제5조(학생회)는 “학생회 장·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학생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조례에 따를 때,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현황조사나 방문 조사 결과,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률이 30%를 밑돌고 있어, 학생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생 대표가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이유는 학생을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무회의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회의 시간 등)도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 등으로 학생 대표와 함께 논의하여 정할 수 있는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가 우선 필요하다. 학생 대표의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을 명문화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참석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학생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학생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학교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 네 가지 제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학생을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이며,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여야 한다. 인식의 전환은 경험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나 학생 모두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의 경험과 기회를 폭넓게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은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자치의 본래 취지, 학생자치 기구와 학생자치 예산의 성격, 학생자치 구성원의 역할 등에 대한 꾸준한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관련한 교사, 학생 연수를 분기별 진행할 필요가 있고, 학생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논외로, 초등학교의 학생자치 조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현황조사 결과, 학생자치 시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학생자치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학생 모임을 ‘학생회’라는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회’라는 공식 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학생자치 시수 확보, 학생회실 설치, 학생회 예산 편성·집행, 선거권,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의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 설 문 지

No. ☐ -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입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 18조(①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는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도내 학교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해주시면, 학생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한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하며 개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행복하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근거 및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및 「시행규칙」

2021년 9월

## A. 일반적 사항

1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2	학 년	<input type="checkbox"/> 1 학년 <input type="checkbox"/> 2 학년 <input type="checkbox"/> 3 학년

B. 다음은 학생의 학생자치와 관련된 경험 및 참여 의식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관련 내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 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 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1-1.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2.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다. (1-3으로 이동)  
② 아니다. (1-4로 이동)

1-3.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로 이동)

-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한다.
- ② 학생회가 학생회 회의 결과와 학생회 활동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 ③ 학생회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학생회 활동을 한다.
- ④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을 계획하여 진행한다.
- ⑤ 기타( )

1-4.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학생회)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5로 이동)

- ① 학생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노력하지 않는다.
- ② 학생회가 학생회 회의 결과와 학생회 활동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 ③ 학생회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행사나 캠페인을 계획하여 진행하지 않는다.
- ⑤ 기타( )

1-5.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학생회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그렇다. (1-7로 이동) ② 아니다. (1-6으로 이동)

1-6. (1-5에서 ②에 표시한 학생만 응답)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이하 학생회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8로 이동)

- ① 학생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② 학생회실의 환경이 쾌적하지 않다.
- ③ 학생회실에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하다.
- ④ 학생회실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
- ⑤ 기타( )

1-7.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 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자치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로 이동)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8. 학생자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10으로 이동)
- ② 아니다. (1-9로 이동)

1-9. (1-8에서 ②에 표시한 학생만 응답) 학생자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1로 이동)

- ① 학생자치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른다.
- ② 학생자치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심의하고 감시하는 과정이 부족하다.
- ③ 학생자치 예산이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다.
- ④ 기타( )

1-10. 학생회가 직접 학생자치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1-11로 이동) ② 아니다. (1-12로 이동)

1-11. (1-10에서 ①에 표시한 학생만 응답) 학생회가 직접 학생자치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1-13으로 이동)

- ①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수렴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이 스스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 ③ 학생 자치활동 계획과 행사를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생자치의 권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므로 학생회가 예산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 ⑤ 기타( )

1-12. (1-10에서 ②에 표시한 학생만 응답) 학생자치 예산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13으로 이동)

- ① 학생자치 업무 담당교사    ② 교장, 교감 선생님
- ③ 기타( )

1-13. 우리 학교는 학생회 운영 규정과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게시하고 있나요?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른다.

1-14.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고 운영하나요?

- ① 그렇다. (1-15로 이동)    ② 아니다. (2-1로 이동)

1-15. (1-14에서 ①에 표시한 학생만 응답)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하는 동아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예: 축구, 힙합)

♣관련 내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1.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2-2로 이동)    ② 아니다. (2-3으로 이동)

2-2. (2-1에서 ①에 표시한 학생만 응답)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가 잘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로 이동)

- ① 학교 수업과 평가에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다.
- ② 학교를 함께 이끌어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존중한다.
- ③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다.
- ④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하고 교육을 한다.
- ⑤ 기타( )

2-3. (2-1에서 ②에 표시한 학생만 응답)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들의 참여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4로 이동)

- ① 학교 수업과 평가에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학교를 함께 이끌어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다.
- ③ 학교 축제, 체육대회 등 행사를 기획할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 ④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받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 ⑤ 기타( )

2-4. 학교에서 학생자치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정기적인 학급 회의나 학년 회의
- 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 교육
- ③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특색활동
- ④ 기타( )

2-5. 학교에서 교사나 외부 강사에게 학생자치(학생 참여, 시민교육, 학생회 활동 등)를 주제로 교육이나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6. 학생자치 활동 중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영역에 ○표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학생 대표의 교무회의(교직원 회의) 참석
- ②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 교육
- ④ 학생들의 참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학교 공동체의 의식 개선
- ⑤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급식, 현장 체험 학습 등 생활 운영
- ⑥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축제, 캠페인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 ⑦ 기타( )

3-1.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학년 구분 없이)이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3-2.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3-3. 위의 문항에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4.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학년 구분 없이)이 학생회 대표(학생회장)로 출마할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3-5. 모든 학생(학년 구분 없이)이 학생회 대표(학생회장)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기타( )

3-6. 위의 문항에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1. 학생자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2. 위의 문항에서 답한 학생자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생자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귀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부록 2]

3-3.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사람에게는 투표권이 있는 것이니 당연히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li> <li>▪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선거권을 안 주는 것도 불공평하고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당연하니까.</li> <li>▪ 학생회의 대표는 학생들의 대표인데, 학생들의 대표를 자신들이 뽑아야 학생회 대표와 학생 간의 분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li> <li>▪ 학생들 자치에서 운동회, 축제, 여러 가지 등등 질문을 해 정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li> <li>▪ 누가 공부를 잘하니까 학생회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생회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li> <li>▪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주권, 즉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학교도 같은 의식을 사용하여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것이고 또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기 때문.</li> <li>▪ 선거권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권리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투표인 만큼 학생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 모든 학생이 각자 다른 생각을 표하고 있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1학년 친구들은 아직 학교에 대해 2, 3학년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li> <li>▪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li> <li>▪ 학교에는 특정 학생들만 선거권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학생회 대표는 모든 학생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li> <li>▪ 재학 중인 학교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에는 당연히 모든 학생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 자기가 생활하는 학교이기에 자신을 위해 좋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li> <li>▪ 우리 학교 학생이니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li> <li>▪ 학교생활과 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선거를 통해 학생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li> <li>▪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li> <li>▪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기 때문이다.</li> <li>▪ 우리 학교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li> <li>▪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임원을 뽑는 것이므로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학생회는 학생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대표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li> <li>▪ 학생회 대표는 학생들을 대신하여 의견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li> </ul>

생각한다.

- 각 학년 학생들이 추구하는 학교에 대한 가치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달라서 모든 학년의 의견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을 뽑는 것이기에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여 학생회 대표를 뽑아야 한다.
- 동원중학교에 속해있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학교를 이끄는 학생회 대표를 같이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를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 직접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필수적인 선거 규칙이기에
-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의 권리엔 자유권이 있습니다
- 모든 학생이 권리가 있으므로
- 한 명 한 명의 선거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교 회장을 뽑아야 하니까 모두 다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 대표이기 때문이다
- 학생회 대표는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인데 모든 학생의 의견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대표를 뽑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 나이가 가장 많은 3학년이 지도력 있게 학생회를 잘 이끌 것 같고 1학년, 2학년보다 더 학생회 같은 일에 경험이 더 많을 것 같다.
- 1학년이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것 같아서
- 학년 상관없이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학생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생각해야 하므로
- 학생들의 권리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 모든 학년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학교는 민주교육을 배우는 곳이므로 민주주의의 대표예시라고 볼 수 있는 선거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 학년과 관계없이 투표권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학교의 주인이 학교의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학교 전교생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인데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 누구나 학생회를 이끌어갈 능력과 시간 등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 학생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학생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모두에게 학생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만족해야 하니까
- 당연히 우리가 믿고 뽑은 우리의 대표여야 더 믿고 잘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 선거권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 모든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자치에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년 구분 없이 학생회 대표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의 대표를 우리가 서로 보고 판단해서 뽑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한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한 학교의 학생이자 사람인데 투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 모두 같은 학생으로서 그에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누구든지 학생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 모든 학생이 투표해야 공정성 등이 우리 학생에게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선거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학생회 대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학생 자기 자신이 다니는 학교이므로 자기가 직접 선거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학생의 권리가 있으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 자기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토대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누구나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학생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선거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못 가질 권리는 없으므로
-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모든 학생이 선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뽑히기 때문이다.
- 다 같이 다니는 학교 대표는 모두 투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 학교 학생이기 때문이다
- 3학년이든 1학년이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 1학년들도 같은 중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가져야 합니다.
- 같은 학교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모든 학생이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두 우리 학교 학생이어서
- 우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등한 선거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우리가 원해서 선택한 대표를 뽑아야 잘 이루어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자신이 직접 다니는 학교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학교의 학생이기 때문
- 학생회는 학교에서 중요한 부분 회의를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선거한 것은 모든 학생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학생회 대표를 뽑는 것. 학생회는 학교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대표를 뽑는 건 모든 학년이 동시 참여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그래야 정당하니까
- 선거란 그런 거니까
- 학교 내에서는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 왜냐하면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들이 원하는 의견을 더 반영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뭐라 답변을 드려야 할지 어렵습니다
- 학생회란 학생들 대표하는 집단이기에 학생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권은 전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라 생각한다.
- 선거권이 성인인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듯이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당연히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자신이 생활할 학교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모든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본인의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교의 학생들은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학생 또한 인권을 가진 시민이며, 학생들의 대표는 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학생 대표를 뽑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은 그들의 선거권을 비롯한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누구나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 투표권은 누구나 이 학교 학생이면 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학생회 대표를 뽑는 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의 대표자가 될 사람을 뽑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학교는 학생이 생활하는 곳이고 학생회 대표 또한 학생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한다.
- 나이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커서 잘 따를 것이다
-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은 학교라는 사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선거함으로서 자기 만족감과 내가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선되든 만족할 것 같다
- 학생회 대표라는 것은 학생의 대표와 같아서 학생회 대표를 선출한 것은 선거권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투표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생회 대표를 뽑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대표는 많은 학생이 지지하는 학생들을 잘 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표권은 인간이 누리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이미 우리나라의 선거법에서도 성별,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 학생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 학교 학생 대표 선출이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회라면 자신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 대표를 뽑는 건 학생들이 더 신뢰하는 사람이 해야 해서 정당하게 모든 학생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들의 대표를 잘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한다.
-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1년 동안 적응과 준비를 하고 학생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를 통해서 학교의 안전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표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면 당연히 자신들의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권
- 선거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
- 학생회의 대표를 뽑는 것은 학생에게도 영향이 크고 학생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학교를 이끌어 갈 학생의 대표가 잘못된 학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 학생들도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학생회 대표를 뽑을 때도 당연히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나이에 따라 차별하여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선거권은 모두 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 자신이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여 학교를 이끌고 싶다면(학교발전을 위해) 누구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 사람이라도 선거권이 없으면 이건 불공평하기에 모두가 선거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 만약 특정인들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반발 및 부정행위를 할 수 있어서.
- 그렇다'로 하면 인기 투표, 부정투표 같은 부정부패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아니다'라고 하면 학생의 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안 좋은 것 같다. 결론적으로 '애매하다'가 맞을 것 같다.
- 학생이 학생회 대표를 당연히 선출하여야 하기 때문.
- 학생도 선거해 봐야 해서 위의 문항에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 학생의 대표를 선출하니까 당연하고 학생들의 의지대로 선출해야 해서 모든 학생이 선거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의 대표는 1, 2, 3학년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학생이 모두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모든 학생은 선거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같은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대표니까 모든 학생은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3학년은 괜찮지만, 아직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기가 필요할 것 같다
- 학생의 대표인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 모든 학생은 당연히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 이끌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다니는 학교니까 그 학교를 대표해줄 사람은 우리가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의 대표를 뽑는 건데 소수의 의견만 반영되면 안 되기 때문
- 학생회 대표가 우리 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학생에게 선거권을 줘야 공정하기 때문이다
-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 민주주의 사회의 꽃은 투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하는데 맞는다고 생각한다.
-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굳이 억지로 투표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 학교에 학생으로서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표를 선출할 때는 당연히 선거권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당연히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른들이 뽑으면 외면적인 것 만 보기 때문에
- 우리의 학교니까 학교를 이끌어갈 사람도 우리가 뽑아야 해서
- 3학년이든 1학년이든 우리 학교의 책임자는 자신이 직접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기 때문이다
- 당연하지 않나요?
- 모든 학생의 의견이 소중해서
- 학생을 대표하는 자리니까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이니까
- 그래야 공정하고, 아무도 토를 달지 않기 때문이요
- 학교를 이끌어갈 사람을 학생이 뽑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 선거권은 모든 학생이나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 명, 한 학생이라도 배제 된다면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
- 학생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이 있어야 우리 학교가 더 좋아질 것 같기 때문이다
- 학생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모두 같은 학생으로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같이 다니는 학생이라면 당연한 것 같다
- 선거하며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 내가 다니는 학교의 대표를 뽑는 일이기 때문
- 모두 똑같은 학생
-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교 학생회 대표를 뽑을 권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
-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학교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선거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모두가 투표한 결과로 선정된 학생회 대표여야 책임감이 생기고 더 잘 이끌 수 있다
-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대통령을 뽑듯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뽑아야 한다.
-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다
- 우리 학교 학생을 대표할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아 우리 의견을 전달할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
- 모두가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한다.
- 회장, 부회장을 뽑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학생이다. 모든 학생은 결정할 권리가 있다.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니까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죠
- 학생회 대표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자신이 다니는 학교이니 당연한 권리이다.

- 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주어지는 권리
- 우리의 손으로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함
-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 선거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 인권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
- 투표는 공평해야 한다.
- 민주적으로 선거권은 모든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
- 선거권을 모든 학생이 가져야 공정한 선거라 할 수 있다
- 자신이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당선된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 투표권은 학생이 모두 뽑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 학생들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 학생의 기본권이자 국민의 기본권
- 학교의 대표이므로 당연히 학생들이 선거할 의무가 있다.
- 공평하기 때문
- 선거권은 학생 한 명당 의견이 소중하기 때문
-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학생 대표는 거짓되고, 모순된 꾀두각시, 바지사장 역할밖에 못 한다.
- 모든 학생이 학교 다닐 때 학생회 대표 공약으로 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니 해주는 게 좋다
- 학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니 전교생이 참여할 권리가 있다
-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몇몇 특정 무리 세력으로 투표를 이루어지기 때문
- 학교 대표를 뽑는 일에 누구나 선거권을 지녀야 한다.
- 그것이 바로 학생회이기 때문
- 학교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히 모든 학생이 뽑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해질 수 있다
- 학생 대표를 뽑는 것이므로 모든 학생에서 선거권을 줘야 함
-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기에 학생들이 뽑아야 하는 것이 맞다..
- 모든 학생은 자기 대표를 뽑을 권한이 있음
- 자기 학교 대표를 뽑는 것이니 자기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우리가 뽑아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
- 모든 사람이 선출하는 게 더 낫다.

- 학생회 대표는 학생을 위한 직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 선출할 권리가 있다
- 자기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지대로 뽑아야 함
- 학년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래 학년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출마하고 선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학생회를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것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 학교의 학생이라면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 학생 모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 학교 학생이면 학교를 대표할 학생을 선출해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학생의 대표니깐 모든 학생이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 민주적이 되기 위해 어떤 문제와 관계없이 모두가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 누구에게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사람, 학생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다닐 학교의 대표를 뽑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은 모두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다.
- 학년 상관없이 학교 학생이라면 학생이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
- 모든 학생이 투표를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
- 회장을 뽑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 학생회 대표니까 다 참여해서 신중하게 골라야 해서
- 모든 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데 당연하니까
- 학교에 주인은 학생이기에 학교에 대표하는 주인인 학생이 선출해야 한다.
- 학교에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학생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
- 학생회 대표는 모든 학생이 뽑아야 한다.
-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
- 학생회가 모든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
- 학생이 참여하므로 당연히 학생들이 누릴 권리가 있다
- 학교 학생으로서 직접 학생회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다
- 모든 학생은 투표할 권리가 있다
- 당연한 거 아닌가요?
-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 지도자를 스스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 누구나 자유롭게 대표가 될 수 있다

- 학교에서 다 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 학생회의 대표는 학생들의 대표이기 때문
- 학생 대표들은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
- 선거권은 학교 내에서 학교 내용을 조정하는 중요한 사람이 갖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당연히 필요하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누구나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미리 선거에 대해 자세히 겪어보아야 나중에도 나랏일을 할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그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학생 대표는 우리 학교의 학생을 위한 일들을 하므로
- 자신들의 대표를 뽑기 때문
- 학생회는 학생 대표이므로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 학생 대표 즉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은 영향을 받는 사람, 학생이 가져야, 학생들의 불만이 없고, 정당하기 때문이다.
- 학교의 학생으로서 투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투표가 평등하게 진행되어야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다.
- 모든 학생은 학생회 대표로서 학교의 학생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해야 하고, 자신의 권리가 있기 때문
- 어떤 이유더라도 우리 학교 학생이고 학생회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사람마다 다르므로 모든 학생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함
-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학생회 대표를 선출할 선거권은 학교의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 모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
-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여야 학생들 전체의 객관적인 의견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학교의 구성원이기에, 학교의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
- 인권보장
- 우리 학교의 대표이기에 구성원 모두가 선거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평등한 권리
- 민주주의 최고
- 그것이 학생의 기본권이라 생각한다.
- 선거할 권리
- 자기 학교이기 때문에 대표도 자신이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학생들이기에 그 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한다.

- 학교의 모든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이다(모두가 학생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
-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투표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부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은 평등해서 당연히 가져야 한다.
- 학생을 대표해서
-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회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처럼 모든 학생이 선거할 수 있다
- 의견을 존중받기 위해
-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학년이 졸업한 후의 대표를 뽑는 것은 참여하지 않은 3학년은 선거를 투표할 수가 없는 것이 맞다.
- 3학년이 졸업할 때 대표를 뽑으면 1, 2학년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는 곧 졸업하는 3학년에겐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나는 선거 기간에도 3학년들이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재학생이니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의 대표를 뽑는 일인 만큼 모든 재학생의 의사를 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에 학생이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 대표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학생이 투표해서 정당한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에
- 학생회의 대표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3학년은 졸업을 앞두고 있으므로 투표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원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모두가 가져야 한다. 3학년이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2학년과 함께 생활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할 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학년들은 졸업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학교는 모든 학생이 함께 운영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 3학년은 졸업하기에 굳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선거권은 학생이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를 뽑는 거니까 학생이 모두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 3학년을 졸업하기 때문에 딱히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3학년은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투표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학생의 대표이므로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투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모두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대표를 정하는 일은 당연히 학생 전원이 선거권을 누려야 한다.
- 하나의 집단에서의 대표를 뽑을 때는 그 집단 구성원 누구나 선거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의 대표는 당연히 학교의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선거공약을 듣고 모두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 누구나 투표권이 있는 것처럼 학생회 대표도 학생 전체가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우리 학교의 대표니까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 자기 학교를 이끌 사람을 스스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 학생이라는 것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학생의 자유가 있어서
-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은 우리 학교의 공동체이므로 선거권을 누려야 한다 생각
- 학생회 대표는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전주 신흥중학교 학생이라면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 학교의 학생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 대표를 선출하는 데에 나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학년이 다르더라도 다 같은 학교에 있는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선거권은 모두 학생들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한명 한명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로서 선생님이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투표로 뽑고 학생회를 선출하는 게 맞다고 본다.
- 학교를 이끌어 가는 학생회 대표는 전교생이 가져야 하는 권리라 생각해서다. 공정하게 하려면 모두 참여해야 한다 생각해서다.
- 선거권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공평하게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여 누구 하나도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선거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한다.
- 학생회 대표를 선출할 때 쓰이는 선거권은 학년 구분 없이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학생에게 인권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누구나 학교를 위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 학생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기 때문이다
-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누구에게나(만 18세 미만을 제외한 성인) 선거권을 제공하여 나라의 대표를 투표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표를 선거하는 일에 다른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올바른 판단과정을 거치고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 사회를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회 대표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한 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를 뽑는 것은 학생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고 또 그것에 대해 조율해 주는 학생회 대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기에 모든 학교 학생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 모두가 동등하게 선거할 수 있어야 한다. 학년 1, 2가 적다고 투표를 못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만약 배제하고 투표하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기에 더 나은 학교가 되기 힘들 것이다.
- 학생의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히 학생들이 뽑아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선거해 봄으로써 사회에 나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 공평한 목표를 위해서이다
- 학생회 대표 같은 자리는 모든 학생의 의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나이와 장애의 유무를 가지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다 같은 한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 다 똑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선거권이 있고 누구는 없는 것은 불평등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투표하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시민들이 뽑듯이 학교라는 하나의 작은 사회에서 우리의 말을 대변할 사람들을 뽑는 선거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듯이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 대표도 당연히 학생이 뽑아야 한다.
-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학교에도 적용하면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은 모두 학교의 구성원 중 한 명이기에
- 자기가 원하는 학생회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 자기 의사를 투표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학생의 대표를 뽑는 것이니 학생들이 선출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 학생회 대표는 당연히 학교와 학생을 위한 일이니 모든 학생이 당연히 뽑는다
-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성인이 되면 나라의 대통령을 뽑듯이 학교에서도 학교 내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 우리는 모두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 하나라도 할 수 없는 투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 우리 학교의 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대표를 직접 선출해야 하므로
-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사람은 학생이 선출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 선거의 4가지 규칙 중 평등선거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은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신이 학생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공약을 한 학생회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분야를 참여하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배우기 때문
- 학년을 나누면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의 인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우리 학교 학생 대표를 뽑는 것과 같아서 우리 학교 모든 학생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는 모든 학생을 대신하여 일하여야 해서 모든 학생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 학생회 대표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자기 학교 대표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학생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이 생각한 사람이 학교를 잘 이끌 수 있으면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들 공정하게 투표하는 게 제일 공정하기 때문
- 모두 선출할 수 있어야 모든 학생이 직접 뽑아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기 때문
- 학생으로서 학교의 학생회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 1, 2, 3학년 학생들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인권이 있으므로
- 학생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의 학생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 학교를 이끌어갈 학생 대표를 보고 그 대표의 공약이 우리 학교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 되도록 높은 학년이 주도해야 하는 것 같다
-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선거권에서 “권”은 권리라 생각해서
-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누려야 공정한 선거를 하고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다.

3-6. 모든 학생(학년 구분 없이)이 학생회 대표(학생회장)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생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li> <li>▪ 적어도 1년이란 시간 동안은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 우리 학교에 대해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li> <li>▪ 1학년은 처음 들어와서 익숙하지도 않고 학교에 대해 아는 게 부족하니까 학생회 출마하는 것을 좋다고 할 순 없다. 2학년은 3학년보다 모르고 1학년보다는 아는 게 많으니까 학생회장보단 부회장을 해서 어떤 식인지 알아가도 좋을 것 같다. 3학년은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고, 오래 있었으면 아는 게 많은 것이고 학교 규칙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학생회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li> <li>▪ 3학년이 학생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과도 친분이 있고 학교에 다닌 만큼 다른 학생과도 친하여서 선생님과 학생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잘할 것 같기 때문이다.</li> <li>▪ 학생들의 자치에서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 등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li> <li>▪ 아무리 그래도 1학년이나 2학년이 회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 선배들은 우리보다 학교생활을 많이 해 봤고 더욱 성숙하기 때문에 학생회장은 3학년 선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과 1학년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회가 오니까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 모든 학생은 평등하고 누가 어떤 마음가짐이지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li> <li>▪ 학생이 모두 출마할 수 있다면 뽑는 과정과 출마 과정 등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혹시 장난과 호기심으로 출마를 하였는데 뽑힌 상황에서 대표가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모든 학생이 출마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li> <li>▪ 아무래도 3학년이 제일 생각이 풍부하고 더 학교에 대한 경력이 많으니 회장은 3학년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li> <li>▪ 학교에 들어 온 지 얼마 안 된 1학년 친구들이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li> <li>▪ 회장은 학교를 오래 다닌 3학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함.</li> <li>▪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지금은 1학년과 2학년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를 하는데, 이 방식이 사라진다면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1학년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거나 불편함이 생길 것 같습니다.</li> <li>▪ 만약 1학년이 학생회장을 하게 된다면 2, 3학년 중 몇 명은 무시할 것이고 1학년 학생도 그런 무시를 받다 보면 처음엔 괜찮을지라도 점점 무서워져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li> <li>▪ 1학년은 적응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li> <li>▪ 모든 학년이 동등하게 학생회 대표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ul>

- 1학년은 학생회 활동을 잘 이끌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
- 자신의 나이에 제약 없이 학생들이 참여해야 조금 더 다양한 나이의 의견 수용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 학생으로서 학생자치에 참여할 자유가 있어서
- 학교를 조금이라도 먼저 다녔던 학생이 좀 더 학교와 학생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1학년 보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1학년은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학교를 함께 운영할 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1학년은 학교에 대하여 모르는 것들이 많고 학교에 적응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 다니고 있는 학교에 관한 교칙과 구조 등 잘 익히지 않은 상태로 학생회를 출마 한다면 자신에게도 타 학생들에게도 믿음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1학년은 아직 학교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초등학교에서와는 달라진 교칙을 아직 잘 모를 수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우선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자치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 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 중학교를 처음 접하는 1학년 친구들에게는 선배들이 학생부/ 학생회장 활동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모두가 출마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기에
- 학교를 1년 이상 다닌 2~3학년이 학생회 대표를 해야 학교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회장은 경험과 숙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학년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학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1학년은 아직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 아무리 동등한 학생이어도 1학년과 3학년의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 1학년은 아직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적응의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2학년 혹은 3학년 때 출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학교에서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학교의 문제점을 더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학년이 1, 2학년인 전교 부회장, 학생회 임원을 편하게, 강단 있게 이끌 수 있을 것 같다.
- 1학년이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을 거 같다
- 학년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학년 학생들은 3학년 학생과 비교하면 생각하고 의견을 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1학년이라도 출마를 통해 좋은 경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적어도 2, 3학년이 되어야 이 학교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경험도 많이 쌓이기 때문이다.
- 1학년 때는 학교생활 규정과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2학년 때부터 하면 더욱 효율적인 자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다른 학년이라도 다 동등하여서 다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학년이 참가하면 더 많은 학교를 위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 1학년 같은 경우엔 학교 규칙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를 거 같기 때문이다.
- 1학년들은 아직 중학교 생활이 미숙하여서 1학년은 제외하는 것이 학교 운영에 좋을 것이다
- 학생자치를 이어가는데 학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
- 학교에 오래 다녀 학교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고학년이 대표 자리에 적합할 것 같다.
- 어느 정도 학교생활을 해가면서 학교에 대해 더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데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한다. 다짜고짜 모든 학년이 전교 회장 선거에 나온다면 매년 학생회 활동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 만약 1학년 학생이 학생 대표로 뽑힌다면 아직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회장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 학생회장을 하려면 일단 경험 등이 많아야 할 거 같다
- 군산 제일중 학생이라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는 게 학생회장단이기 때문이다
- 3학년이 학교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학생이기 때문
- 학생회 대표는 적어도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따라서 3학년(고학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
- 그래도 경험이 많은 3학년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 나이와 관계없이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나이에 상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야 공정하니까
- 모두에게 출마할 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자치를 이끌고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해 잘 알아야 하며 현재 학교에서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인지해야 해서 모든 학생이 출마하기보다는 모든 학년을 이끌 수 있는 3학년이 하는 그것이 좋다.
-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자신이 학생 대표가 되려 나가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3학년에 비해서는 아직 어리고 미숙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도 자신만의 생각과 책임감이 있어 나간 것이므로 해도 된다 생각한다.
- 1학년은 학교에 처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배치도 잘 모르고 2, 3학년에 비해 학교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 1학년들은 중학교 초일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 학년에 상관없이 학교의 회장으로서는 잘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학교의 문제나 좋은 점 등 경험을 통해서 얻어보고 우리 학교의 재정이나 예산 등을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을 지게 되면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후배들이 선배들의 학생회 활동하는 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학교를 잘 이끌어야 하고 학년이 낮아 대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이다
- 학생회 대표는 모든 학년에서 제일 올바르게 생각되는 사람이어야 해서
- 1, 2학년보다는 학교에 더 오래 있던 3학년이 더 학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것 같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가 너무 급해서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 3학년이 제일 높다고 해서 3학년만 출마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1, 2학년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3학년만 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 아무리 명량할지라도 선배들에 의해 위축되고 선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할 것 같다.
- 학생회장은 물론 나이에 상관없이 학교와 교우관계 그리고 임원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저학년이 하면 고학년의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 우리는 나이에 따라 느끼는 것과 생각이 자라는 게 다르므로 학생의 대표는 더 생각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 막 들어온 1학년이 바로 학생회장이 되면 좀 아닌 것 같고, 한다고 해도 2학년이나 3학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1학년과 2학년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끔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하더라도 뽑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니 3학년이 회장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권리를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 부회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가 학생회장을 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1, 2학년보다 학교를 더 많이 다닌 3학년이 더 중요한 직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학생회 대표는 학년과 상관없이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 3년이 가장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 1학년은 아직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1년간 학교 체험 등을 체험해 봐야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다.
- 잘 모르는 1학년 혹은 2학년이 학생회장을 하게 된다면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 모든 학생의 인권은 다 평등하기 때문이다.
-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은 학교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아서 2, 3학년이 출마하는 것이 좋은 거 같다.
- 직접 출마해 보니 학생회장 같은 지도력이 보장되는 직급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 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제 막 1학년이 된 애들보다 오래 학교에 다닌 3학년들이 학생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회장, 부회장에 출마할 때 학년 구분이 있어야 학교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 모름
-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 1학년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른다.
- 1학년 같은 경우는 막 들어와 아직 학교 운영체제를 잘 모르기에 1년 스킵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능력이 3학년만 아니라 1, 2학년도 뛰어날 수 있어서
- 학교에서 그렇게 시켜서
- 나이가 어려서 이끌어가기 힘들지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어 1학년이 학생회장이 되면 학생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를 수도 있어서 3학년이 학생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를 내는 곳이라 생각한다. 모든 학생이 즐거울 수 있는 행사를 꾸며서 진행하는 것
- 후배가 선배에게 뭘 부탁한다는 게 어렵다. 그리고 경험.?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나이 제한은 없어도 될 것 같다
- 학생회 대표는 학교를 조금이라도 오래 다녀 학생들의 요구나 필요사항 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최고 학년인 3학년이 학생회장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 전 학년은 1학년을 포함한 모든 학년이므로 학교의 특성을 알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막 들어온 1학년들이 학생회장이 된다면 좀 더 새롭고 유니크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학교 특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학생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자신이 학생 대표가 되어 학교라는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신입생들은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1, 2학년이 학생회장이 될 시 학생회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위 학년을 지도하기에 눈치 보이는 환경이므로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 어리고 학년이 낮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다. 어리다면 어리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이 있고, 그들 또한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학교에 처음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모르고 선배들 눈치가 보일 수 있어서 3학년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학년이 있는데 높은 사람이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 학생의 대표로 학교의 행사나 축제를 주최하고 계획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학교에 대해 잘 알고 학교에 관심이 있으며 그만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학교에 적응

을 못 했거나 경험이 없는 입학생들보다는 경험이 많은 재학생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운 3학년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잘 학생회가 이끌어질 수 있게
- 3학년이 학교를 가장 오래 다녔으니 그만큼 학교를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해서, 학교를 더 좋게 바꿔주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모든 학생이 나오는 것은 공평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직 학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1학년들은 조금 버거워 보인다.
-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처음 중학교 들어와서 학생회 대표를 한다는 것이 조금 버겁고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
- 가장 높은 학년이 학생회장을 해야 학교의 상황도 잘 알아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학년이 그래도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행사나 다른 활동을 할 때 경험이 있어 편하기 때문이다
- 물론 학년의 구분이 없어야 할 수 있지만, 학교에 대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을 대표하는데 굳이 나이를 따져야 하나 싶어서
- 너무 난장판이 되고 선배가 후배보다 직급이 낮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다
- 1,2학년의 경우 학교에 일 처리 방식이나 행동 양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회의를 진행하면 상위 학년을 대하는 게 어려워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이다
-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신이 출마하여 매력 있는 공약이라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꼭 위 학년만이 성실히 일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2학년들도 선배들보다 잘할 수도 있어서 모두에게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 3년 정도 학교에 다니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불편한 게 무엇인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학교에서 제일 높은 3학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
- 1학년도 2학년도 학생회장으로 출마가 가능해야 한다. 나이가 적어도 충분한 통솔력이 있다면 학생들도 믿으며 따를 것이다
- 3-3에서 말했듯이 1학년과 2학년이 학생회장으로 출마해서 학생회장이 된다면 체제가 어긋날 수 있다.
- 신입생이 학생회장을 할 시 대다수가 학교에 적응하는 중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것 같고, 염려된다.
- 학생들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으면 당연히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지정된 학년에 성실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 학생 대표는 학교에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큰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 3학년이 하지만 1, 2학년 학생들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나가면 누구든 학생회 대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와 나이는 무관하여서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어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학생회 대표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이처럼 생각한다.

- 학교를 더 오래 다닌 높은 학년이 학교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학교에서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회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전체 학년 중 오히려 자치 활동, 사회에 관심이 있거나 학생 회의를 분위기 좋게 이끌어 주는 학생회 대표가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모든 학생이 학생회 대표로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만약 1학년이나 2학년이 학생회장을 한다면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학교 내에서 학생회장을 무시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생회의 중심인 학생회 대표가 경험이 많은 3학년이 좋아서.
- 1학년은 중학교에 처음으로 생활해 보기 때문에 학교 운영과 환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에 학생회 대표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 그래도 그나마 높은 3학년이 학생회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1학년이나 2학년이 하면 살짝 3학년이 부담될 수 있기에 그렇다.
- 학교에 적응이 안 된 1학년들보단 학교에 적응이 된 3학년들이 더 믿음직스러워서.
- 3학년 혹은 2학년쯤 돼야 학생회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1학년 혹은 2학년 중 장난기가 많은 학생이 선출될 수도 있으니.
- 학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 1학년이나 2학년도 학생회장을 맡고 싶을 수도 있어서입니다.
- 학생회 예산을 짜고 운영하는 데 있어 1학년보다는 3학년이나 2학년이 덜 어려울 것 같아서입니다.
- 지금 2학년과 3학년이 회장으로 출마할 수 있고 임원 또한 2학년, 3학년으로 제한되어있다. 그렇기에 1학년과 소통이 잘 연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임원으로 1학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학년은 너무 어리니 2~3학년 선배들부터 할 수 있다고 본다.
- 새로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이 학생회장을 할 순 없다고 생각해서
- 전교생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에 대해 잘 알고 또 전교생을 이끌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선생님(?학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1~2학년 때는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3학년이 학생회장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1~2학년이 더 많을걸 알고 난 뒤에 3학년일 때 학생회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직 학교에 다녀보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운영방식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도 나이가 가장 많은 학년이 회장을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낮은 애들 터는 부회장을 했으면 한다.
- 1학년은 학생을 대표하기에 아직 학교의 생활, 방법 등이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를 잘 아는 3학년이 해야 한다고 생각
- 1학년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회장은 3학년만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이 만약 학생 대표가 된다면 선배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선배들의 생각으로만 학교가 돌아갈 것

같다

- 다양한 경험 같은걸 할 수 있어서
- 학년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이다
- 그래도 3학년이 이 학교를 잘 알고 오래 다녔으니깐 그래도 3학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듬직하다.
- 1학년이 회장을 못하기 때문이다
- 학년이 낮은 학생 중에서도 책임감 있고 리더쉽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
- 학교를 위해서 학생 대표가 되고 싶다면 학년에 상관없이 학생 대표가 되면 좋겠다.
- 모두 평등하게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 1학년은 아직 학교가 처음이기 때문에 1년은 더 다녀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은 아직 2학년이나, 3학년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학년부터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항상 3학년이 해 왔지만 3학년이 학생회장을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은 학교에 다니면서 느꼈던 문제점, 개선될 점을 누구보다 알기 쉽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1, 2학년은 학생회에서 경험은 3학년보다 부족하니까
- 1학년은 학생회는 몰라도 회장, 부회장이 되기엔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 누구나 학생 대표를 출마할 수 있어야 모든 학생이 동등하다고 생각되어서
- 1학년은 생각이 아직 깊을 때가 아닌 것 같다
- 학생회 대표는 이 학교 학생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 모든 학생들도 학생회장을 할 권리가 있다
- 그래야 공정하고 당선돼도 아무 말이 없기 때문이다
- 공평하게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중학교에 처음 입학해 아직 미숙하고 낯선 환경에서 1학년이 학년 대표로 선출된다면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3학년보다도 잘 이끌어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고 연장자인 3학년이 학생 대표를 하는 게 운영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모든 학생이 출마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학생 대표를 뽑을 수 있다
- 누구든지 학생회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학교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가질 수 있으니깐 그냥 당연한 것 같다
-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책임감이 강하거나 성숙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나이가 어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 학교가 조화롭게 잘 돌아가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1, 2, 3학년이 출마하여 학교가 더 잘되도록 해야 한다.
- 1학년은 들어오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
- 처음으로 들어와서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1학년들보다 학교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2학년이나 3학년들이 더 학교를 잘 알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은 2, 3학년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두가 참가해도 어차피 투표에서 운영 못할 것 같은 사람은 거를 테니까
- 신입생들은 학교의 분위기나 규정들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 1, 2학년도 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고 2, 3학년 선배들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
- 1학년은 이제 학교에 와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2, 3학년들이 하는 게 맞다
- 학년 구분 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함
- 1학년보다 3학년이 조금 더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사고능력이 좋기 때문
- 1, 2, 3학년 모두가 학교를 구성하고 구성원 중 대표는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다 출마가 가능해야 한다.
- 저학년은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고 어색하다. 학교를 많이 알고 있는 고학년이 하는 게 맞다
- 우리 학교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이 대표가 되어야 우리 학교를 개선할 수 있다
- 경험이 많은 3학년이나 2학년이 하는 게 낫다. 그래야 학교 문제점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다
- 1학년 학생이 출마했을 경우 행사, 예산 방안 등을 잘 모르고 미숙하다. 3학년이 출마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3년 동안은 학교에 다녀본 만큼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더 잘 알 것이고, 그만큼 많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나이와 상관없이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학생회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3학년이 오래 살았으니까
- 학생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이가 있고 더 좋은 판단력과 좋은 학급을 만들기엔 1, 2학년보다 3학년이 좋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의 경우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부족할뿐더러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다
- 그래도 2, 3학년이 해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 1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잘 모르니까
- 평등해야 하기 때문
- 1학년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 나이가 적어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두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 학년이 더 높아야 그에게 맞게 더 올바르게 학생회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때문
- 누구나 학교의 일에 관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누구나 도전할 기회가 있어서
- 잘 모르겠음
-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 학생의 인성, 성격 등의 검사필요
- 1, 2학년이 3학년을 제치고 학생회장을 할 경우, 학교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은 출마할 수 없다. 1, 2학년들은 아직 학교에 대해서 모른다.
- 3학년만 하면 다양한 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특정 학년만 권한을 누린다.
- 1학년은 학교에 막 들어와 적응이 안 된 시기. 2, 3학년은 경험이 많음
- 학생들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해주면 좋다
- 학교에 관해 아는 게 있으려면 2, 3학년이 하는 게 맞다
- 1학년은 학교에 온 지 얼마 된 신입생이므로 학교에 대해 잘 모른다. 2, 3학년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
- 학교에 다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
-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학생회 대표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됨. 학년이 올라가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생김
- 모든 중1은 초등학생이라 중학교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 1학년이 3학년보다 뛰어난 리더십과 운영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나이에 상관없이 신뢰와 실력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다
-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다
- 1, 2, 3학년 누구는 잘 이끄는 리더가 나올 수 있다
- 학교를 조금 오래 다닌 고학년이 잘 맡아서 할 수 있다
- 학생들 대표로 출마한 선배가 후배에게 눈치를 주거나 안 뽑으면 눈치를 줄 수 있다
- 3학년들이 학교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 중1은 막 들어와 학교를 모르고 정신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아무나 학생회 대표가 되면 안 된다.
- 1학년이 학생회장이 되면 통제가 안 된다.
- 경험 있는 3학년이 해야 함
- 우리 학교는 3학년에서 학생 화장과 부회장 2학년에서 부회장을 뽑는데 그렇게 되면 1학년에게는 선거에 출마할 기회가 없어서 1학년들의 인권을 침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어떤 학년이든 성별이든 모두 같이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학생회 대표의 능력이나 책임감 등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인기 투표처럼 될 수도 있고 학교를 오래 다녀본 사람이 학교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학교는 1학년들이 학생 회기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1학년일지라도 그 학생이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생으로서 모두 같은 위치에 있고 모두 공평하기 때문이다.
- 학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출하게 되면 학교가 깔끔하게 돌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학생회 회의나 다 같이 모일 때 권위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다.
- 1학년은 2~3학년보다 경험은 적겠지만 1학년도 경험해볼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학교에 적응이 되어 잘 아는 이가 학생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 주로 2, 3학년으로 구성되

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나이가 어리다고 준비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해와서 투표로 학생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1학년과 2학년은 아직 학교에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3학년보다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3학년이 가장 어른스러우니까
- 학생 대표는 3학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학년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아무래도 1~2학년보다는 최고 학년이 학교에 필요한 점을 잘 알고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1학년 같은 애들이 중학교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대표로 선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학년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학생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2, 3학년이 1학년보다 운영을 잘할 것 같다.
- 학년수가 높아질수록 학생회 학교에 대해 아는 점이 많고 경험이 더 많으므로
- 학교에 입학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
- 학생 대표를 고학년이 해야 학교의 문제점을 더 알고 해결하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중학교에 학년 상관없이 회장에 출마하면 아직 중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학년이 회장을 하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학년이 해야 함
- 3학년이 학교를 오래 다녔고 나이가 많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 모두가 공평하기 때문
- 학년이 높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평해야 한다.
- 중1이 어리다든가 그래서 못한다든가 그런 건 차별이다
-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자리라서 모든 학년이 나올 수는 없다.
- 학생 중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다.
- 굳이 학년을 따질 필요 없다
-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학생 대표가 될 수 있다
- 1학년이 학생회장이 되면 학교를 잘 몰라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 3학년만 학생회장, 부회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선, 후배를 같이 이끌어나가기엔 아직 1, 2학년이 부족하다
- 처음 온 1학년이 학생 대표가 되기에는 학교와 학생의 의견을 잘 모른다.
- 3학년이 회장, 부회장, 2학년이 부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
- 아직 미숙하고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새롭게 입학한 1학년은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 누구나 학교를 이끌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이에 구분 없이 더 좋은 사람이 대표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어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3년 동안은 다녀봄으로써 학교에 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년 구분 없이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학교를 오래 다닌 3학년이 학교를 더 잘 알기 때문에 3학년이 회장이 되면 좋겠다.
- 
- 1학년은 중학교 생활에 대해 경험이 별로 없고, 학교의 부족함과 넘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최소 2학년 부터 학생 대표를 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험을 많이 겪은 2, 3학년이 학생회장을 해야 학생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이고 학생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을 것 같다
- 학년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2학년보다는 조금 더 배운 3학년이 괜찮다고 생각함. 물론 1, 2학년들도 잘 할 수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아는 지식이나 환경을 고려해서이다.
- 그래도 1학년, 2학년보다 3학년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3학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학생회 대표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의 경우 아직 학교에 적응하고 있을 때이고 아직 학교에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직 학교에 모르는 게 많으면 힘들고 1학년이나 2학년들은 3학년 선배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못 할 것 같다
- 경험이 적은 저학년보다는 많은 2, 3학년의 고학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교 운영에 대한 개념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 학교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학년이 대표가 되지 않으면 다른 학년들이 학생 대표 말을 잘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있는 2학년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모든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느 정도 학교생활이 적응된 학생이 하여야 학생회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교생활을 더 오래 했으며 직접 겪어본 것이 많은 3학년이 학생회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학년이 학생회장을 맡게 되면 고학년 입장에서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 학년 제한 없이 하면 서툰 부분이 많을 것 같다
- 학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1학년은 공동체의 대표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당 나갈 수 있는 권리가 같다
- 조금 더 현명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필요
- 공평해야 하기 때문이다
- 선거권이 지켜졌다면 출마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 자신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갓 들어온 신입생들은 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에 2, 3학년이 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학년은 아직 중학교가 익숙하지 않아 시스템에 적응이 안 됐을뿐더러, 경험이 있는 2학년과 3학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 학생회장이 되었을 경우, 그 학생회장은 선배들의 눈치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학교의 주권은 학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학생자치의 지도자가 되어 학생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학생은 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 원활한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 나이가 더 많다고 해서 뭐든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1학년도 참여를 한다면 다음 학년 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모든 학생은 인권이 있으니
- 왜냐하면 그래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서
- 어느 정도 학교에서 적응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은 학교 규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1학년이 학생회장을 출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아직 배울 게 많고 모르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 곧 졸업하는 3학년을 제외하면 1.2학년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해에 막 입학한 1학년이 학생회장에 출마해 만약 회장이 된다면 아직 미숙한 게 많아 원활하게 회장의 일을 해내긴 어려울 것 같다.
- 학교에 입학한 지 별로 안 된 1학년은 학교를 일 년 다니며 학교의 필요한 점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올라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1학년은 중학교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응 기간도 필요하기에 학생회장은 2학년이 3학년 올라갈 때쯤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며 1학년은 2학년 올라가는 그때 부회장으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
- 학생회장은 학생회 대표로서 학생을 대신하여 선생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전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적응 기간도 필요하고 모든 학년이 다 있는 곳에서 대표로 나서야 하므로 학생회장은 3학년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만약 학생회장이 1학년이면 2, 3학년 학생들이 불편할 것 같고 학생회장도 불편해할 것 같다. 그리고 1학년은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 1학년들은 학교에 대해 적응도 하지 않았는데 임원으로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 1학년보다는 학교를 더 잘 아는 2학년이 학생회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1학년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는지 얼마 안 돼서 중학교에 적응하는 기간도 길고 학교의 특색을 잘 모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이나 2학년들은 상대적으로 3학년 학생들보다는 경험이 부족하기에 일 처리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

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직 입학하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교 체제를 모르고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을 이끌기에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후배의 말을 경청할 선배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전교 회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이끌어야 해서 3학년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 중학교를 더 오래 다닌 3학년이 학생회장을 했을 때 학생회 운영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위 학년을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에 대해 더 잘 알기도 하고 저학년보다 더 안정적으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고학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년 관계없이 하면 복잡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 1, 2학년이 모두 출마하면 투표하는 과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3학년이 아무래도 1, 2학년 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2, 3학년이 학교를 더 오래 다녔고 1학년은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판단력이 더 정확한 2, 3학년이 해야 한다 생각해서
- 학년 제한을 두지 않으면 1학년에 학생회장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2, 3학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회장은 3학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1학년은 중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다.
- 학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전교(총학생회장) 회장의 경우 본 학교를 2년 이상 재학한 학생이어야 학생회를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나의 기준에서의 대표는 역량, 책임감이 중요하지, 나이로 제한을 한다는 건 3학년인 나의 기준에서도 좀 모순된 그것으로 생각한다.
- 왜냐하면 중학교에 들어오는지 얼마 안 되는 1학년은 학교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1학년에는 출마 제한을 하고 2학년, 3학년에서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전교 회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해서 잘 아는 3학년만 출마를 해야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
- 왜냐하면 1학년보다 중학교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중학교 3학년 선배님들이 전교 회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 1, 2학년이 물론 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오랜 생활을 한 3학년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해서
- 학년 회장이 있어서 3학년이 총학생회장을 맡아도 된다고 생각
-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1학년보다 경험이 많은 3학년이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나갈 권리가 있어서
- 학교에 조금 오래 있었던 학생이 더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것 같기 때문이다
- 1학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잘 모를 수가 있으므로

- 중학교 1학년 학생보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채로 학생회장이 되는 것보다 학교를 더 많이 다닌 중3이 학생회장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일단 아직 막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1학년들이 선배들이 학생자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회장의 본분만 다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학년 상관없이 능력과 지도력만 있다면 학생회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래도 학교를 잘 아는 3학년이 학생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생에게 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회 대표는 우리 학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학교의 건의 사항 안건 등을 잘 처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다.
- 1학년 학생회장으로 출마한다면 막 들어온 애들이 학교 규정 등 학교에 대해 잘 모른 채 될 거 같아서 학생회장 출마는 중학교 3학년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전부터 3학년이 학생회장을 할 수 있게 해 왔고, 만약 1학년이 학생회장으로 뽑힌다면 난처할 것 같다. 최소 2년을 다니고 출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직 어린 친구들은 학교에 대해 잘 모를 텐데 그렇다면 학교에 오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무래도 1학년들이 하기엔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 학생을 대표한다는 것은 지도력을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선거권은 부여하더라도 출마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소리인데 1학년은 아직 무리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 학생자치를 하는 것은 모두 다 가능하지만, 학생 대표는 올바른 판단과 지도력으로 학교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학교폭력, 지도교사 불응 등의 지적을 보인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대표는 그 학교의 대표 얼굴인데 대표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서로 좋은 인식이 생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학년이 다 참여하면 좋지만 1학년이 만약 출마한다면 학교에 대해 적응도 잘 안 되고 잘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학년을 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학생 대표는 다른 학년을 통솔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가장 성숙한 3학년이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 1학년의 경우 아직 학교에 적응이 덜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학교의 규칙이나 구조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제한이 필요하다.
- 저는 3학년에게만 학생회 대표 출마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2학년은 3학년에 비해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고 어리숙하기 때문입니다.
- 원래대로라면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것처럼 학생회장도 학년 구분 없이 출마할 수 있는 게 맞다. 하

지만 사회에서는 투표, 대통령 등 제한된 나이도 많다. 나이가 어릴 때는 쉽게 선동 되기도 하고, 사회 흐름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중학교같이 많이 차이 나면 2살 차이 경험의 차이는 크다면 많지만, 대부분 2, 3학년 차이는 비슷하다. 그렇다면 사회처럼 큰 차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모두가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

- 학생의 대표가 되는 조건에서 학년 때문에 안 되고, 어리다고 안 된다는 조건은 없기에 누구나 공정하게 출마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해서.
- 낮은 학년의 학생이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회 대표는 1, 2, 3학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있는 3학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학교에 익숙해져 가는 1, 2학년들이 학생회 대표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아직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학교 2, 3학년보다 경험과 판단력이 흐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회장은 학교 대표인데 더욱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3학년이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이다
- 적어도 학교를 1년 이상 다녀보아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학년이 다르다고 학교를 대표할 학생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에 따라 자유롭게 어느 학년이든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는 1, 2, 3학년이 공동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학년이 배제되면 1, 2학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평등하지 않다.
- 3학년만 학생회장이 되고 나머지 학년들은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학교에서 가장 오래 생활하고 학교의 장단점을 아무래도 더 잘 파악한 3학년에서 학생회장, 부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배가 후배를 더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 1학년 같은 신입생들은 그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몇 년간 그 학교에서 지낸 3학년들이 학교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2학년이 학생회장을 맡는다면 선배들이 무시를 할 수도 있고 같은 학년끼리 밀어주는 투표가 발생할 수 있다.
- 나이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대표가 될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학생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실천해 보고 싶지만, 만약 모든 학년이 아니라 3학년들만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1, 2학년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3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공평하게 모든 학년이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에 별로 오지도 않은 1학년들에서 학생회 대표 자리를 맡기기가 어렵다
- 학년 구분 없이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학생이 학생회 대표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 왜냐하면 학년의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학생회장에 출마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출마하고 싶지만 출마할 수 없는 학생들의 불만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나이에 구분 없이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 후배보다 선배들이 이끄는 게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 다닐 것 같아서.
- 우리 학교는 1학년은 학생 대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에 의문이지만 아직 1학년은 분별력이 떨어지므로 3학년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학년에 편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1학년 동안에는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학교에 도움이 되려면 적절한 조건을 가지고 학생회 대표를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아직 학교에 대해 잘 모르고 미숙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1학년은 제외해야 한다.
-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할수록 어린 사람보다는 보고 들은 것이 많으므로 학교에 오래 머문 3학년 학생이 하는 것이 우리 학교에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 아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1학년이나, 시험을 처음 봐서 바쁜 2학년보다는 학교에 적응을 다 한 3학년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이라면 자신이 학생회 대표로서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 학교에 오래 있어 우리 학교에 문제점과 필요한 점을 더 잘 알고 있을 거 같아서
- 1, 2학년은 아직 학교에 대해 완전히 알지 않고 학생회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년 구분이 아예 없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학년이 회장이 된다면 아직 학교에 관해 아는 것이 부족할뿐더러 선배들 눈치가 보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2, 3학년은 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그 학교에 학생인 이상 학생회장 출마에 더 이상의 제약을 거는 것은 차별이다.
- 나이가 별로 차이는 나지 않지만 확실히 높은 학년일수록 생각이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
- 1학년은 아직 어리고 학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회 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뭔가 그냥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 누구든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 3학년 2학년은 대표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1 학생들은 처음 들어와서 대표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1학년을 제외한 2, 3학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위에처럼 3학년이 1학년 더 나아 이런 게 아니라 학생회 대표는 투표를 통해 누구나 당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본교의 학생으로서 학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회 대표로 출마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 애들도 학생회장, 부회장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관심이 있을 수 있었기에
-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장이 되면 운영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학년을 마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을 내 봐야 발견할 수 있고 불만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기 때문

- 학교에 막 입학한 1학년들을 그전 학생 대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지금 이 학교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 1학년이 학생회장을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 좀 더 학교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 도전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 고학년만 학생회장이 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모든 학년이 학생회장에 출마할 수 있어야 정당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 4-1. 학생자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li> <li>▪ 학생이 스스로 가져야 할 가치</li> <li>▪ 학생들이 모여 우리 학교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 선후배 사이 등을 같이 의논을 해서 알아가는 것이다.</li> <li>▪ 학생들끼리 학교의 문제점을 고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면서 서로 수궁하는 것.</li> <li>▪ 학생자치란 체육대회, 축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li> <li>▪ 학생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이견을 조율할 때 선생님들만 참여하면 학생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시스템이라 생각한다.</li> <li>▪ 학생들이 학교에 건의 사항, 문제점, 바라는 점 등등 학교나 교우관계 등 이런 것을 회의하여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조정하고 학교생활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li> <li>▪ 학생들의 생각을 모으고 학교를 더 키울 수 있는 모임?</li> <li>▪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함께 고쳐 가는 것을 학생자치라 생각한다.</li> <li>▪ 학교를 우리 힘으로 가꾸는 것.</li> <li>▪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것.</li> <li>▪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와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이야기하고 운영하는 것</li> <li>▪ 학생들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li> <li>▪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li> <li>▪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li> <li>▪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힘이 되는 것</li> <li>▪ 학생이 스스로 다 함께 모두의 일을 결정하는 것</li> <li>▪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타협하여 올바른 정서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 나가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li> <li>▪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협력하며 학교 운영에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li> <li>▪ 학생 스스로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li> <li>▪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li> <li>▪ 내가 처음 맞이하는 정부라고 생각한다.</li> <li>▪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생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 인권신장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li> <li>▪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활동, 진행 상황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li> <li>▪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li> </ul>

-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들의 일을 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을 위한 것
- 학생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께 전달하는 것.
- 학생이 학생과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활동
- 학생의 말을 귀 기울여 학교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활용적으로 의견을 사용하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이야기하고 통합하여 말해주는 것
- 학생들이 주도해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모아 협의하는 단체
- 학생을 대표해서 학교를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교를 학생이 직접 이끌어 가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른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곳
- 학생들이 학교의 일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의 요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곳
- 학생들끼리 대표를 선출하여 학교의 일을 결정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회의하여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
- 학생들 자신이 자신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 대해 생각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모든 학생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
-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자기 학교를 먼저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학생자치란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시민의식을 키우고 민주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연습이라고 생각.
-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다스리는 것
-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것, 학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선생님들 아래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
- 학생들이 직접 회의하고 실행하는 것
-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치회
- 학생들이 스스로 회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산제일중을 이끄는 자치회
-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 학교 학생들을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단체
- 학생들이 조그마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것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더 좋은 학교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

- 학생들을 위한 것
- 학생끼리 학교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걸 선생님들 없이 정하는 거
- 학생자치란 교직원들과 학생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율적으로 회의와 활동을 하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끼리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풀어나가는 것? (회의?)
-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 학교 운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 학생들의 모자란 점 등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 학생들이 원하셔서 제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 같다
- 회의를 통해 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사람들
- 모든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는 곳
-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우리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정하는 것.
- 자신의 의견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급을 이끌어나가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 선생님의 개입 없이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 하에 학우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불편한 점 그리고 개선할 점 등을 스스로 이끌어나가 리더십있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자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 많은 리더십과 경험을 쌓고 판단력을 키우는 곳.
- 학생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는 것
- 학생자치는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의 운영 규칙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 학생자치는 학생끼리 회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교를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문제점과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좀 더 좋고 편한 학교를 만드는 단체
- 학생들이 모여서 좀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
- 교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세우면서 스스로 꾸려나가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을 위해 행사를 기획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학생들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끼리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것
-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
- 학생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
- 모두가 하는 것
- 학생회 임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하는 것
-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회 임원을 뽑고 학교와 학생에 관련된 것을 회의하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좀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학생자치라고 생각해요.
- 학생의 의견과 결정
- 학생들이 모여 각자 자기 생각을 전하고 소통하며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 의견을 내고 이끌어 가는 것
- 학생들이 학생 참여 활동을 자신들의 손으로 꾸려나가는 것
- 학생들이 학생들의 방식만으로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
- 학생회들이 회의하고 학생들이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것
-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교의 행사나 축제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을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계획하고 학생들이 회의하고, 학생들이 결정하는 것, 해 나가는 것이 학생자치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모여 필요한 문제들을 토론하고 생각하며 생각을 나누며 하는 활동이 학생자치일 것 같다
- 학생들의 말을 고려해 그걸 실천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그것은 수렴하는 것
- 학생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 학생들 중에 대표가 되어 학교를 위해 돕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들 스스로 학급을 관리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학생들의 활동이다.
- 학생과 어른의 의사소통
- 학생 스스로 학교를 운영해 가는 것
- 학생이 학교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 학생이 대표들에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이 스스로 정책 등을 마련하여 학교와 학생들 위해 일을 하고 잘 이끌어 학생의 예산으로 더 어떻게 잘할지 고민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
- 학교에 각 부서를 대표하는 학생과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끼리 모여 학교나 학급 단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리더십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 대표를 뽑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 활동 등을 이뤄나가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으며 학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
-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서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결정하는 것?
- 학교에서 하는 의미 있는 회의들이나 행사.
- 학생들이 의견을 내면 학생회 임원들이 의견을 검토 후 이 의견을 반영할지 하지 않을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더욱 학생을 위한 곳이 되도록 돕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이 학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학생자치라고 생각한다.
- 1, 2, 3학년의 학급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학급이나 학교에 행정 문제나 행사 등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생활은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곳
- 학생 임원들이 학교의 문제와 불편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해결하고 더 발전해 가는 것 같다.
- 학생회의 자치를 임명된 학생들이 발표, 회의 등을 거쳐서 축제나 다른 것들이 생성된다.
- 학생들의 인권
- 학생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 학교의 문제점 고쳐야 할 점을 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
- 학생 대표가 학교와 학생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실행하는 것.
- 자율학습 시간과 비슷한 것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생활 하는 것
- 학생들이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 학생 대표로 뽑혀서 행사 참여, 행사 계획하는 것
-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학교를 같이 꾸려가는 것
-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는 단체나 활동,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
- 학생에 도움이 되고 교육이 되는 행사나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 대표가 학생회들이랑 모여서 다양한 것을 하는 것
- 학생의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학생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 도움이 되려고 하는 일
- 학급위원들이 모여서 학교에 대한 행사 같은 것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
- 학생들이 학교를 직접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
-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문제점을 말하고 그걸 모아 해결한다.
-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의 일과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학생자치라 생각한다.
-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고 조정하는 것
- 학생의 대표
-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
- 학생들끼리 학교를 대표하여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단체인 것 같다
- 학생이 직접 학교를 위해 발전하는 것
- 학생을 대표하여 무언가를 정하는 것
- 학교를 대표하는 단체
- 학교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
- 학생 개인의 인권 존중
- 선거하고 투표하고 뭐 그런 것
-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임
-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직접 학교를 개선해 나가며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권리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이 필요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학생을 위해 학교를 개선하는 단체
- 학생이 직접 꾸려나가는 것
- 학생들이 학교의 단점,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
- 학생들의 자율을 위해 있는 것, 학생들이 건의하는 것을 토론하고 고쳐 가는 것
- 학생들이 이끌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회의
- 학생이 자치적으로 무언가를 운영하는 것
- 학생이 직접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
- 학교를 대표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가기 위해 함께 회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을 말함
-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 회의와 토론을 하는 것
-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는 활동
- 학교를 잘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끼리 회의나 토론하는 것
-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가고 좀 더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회의와 토론 등으로 결정 내리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해주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내고 학교를 더 개선해 나가는 것
- 학생끼리 학교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것
-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선생님들의 태클을 받지 않으며 오롯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활동
- 솔직히 배운 적이 없고, 제대로 활동이 된 적이 없어 모르겠다.
- 국회
-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 학교를 더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곳
- 학생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공간
- 학생들이 의견을 내는 것
-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활동
- 모르겠다.
-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 학생들의 의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 학생 스스로 자치 활동을 통해 생각을 키우는 것
- 학생들이 직접 자기 학교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해결하는 것이다
- 학생 스스로 활동하는 것
-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나 학교에 관한 의견을 내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이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간접 X, 도와주는 것○)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
-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회 활동을 계획하고 나서서 하는 것이다
-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동하는 것

-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소통하는 곳
- 학생들이 직접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것
- 학생들이 직접 주도해서 구성하고 학생들의 필요나 요청을 반영하여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것
- 학생 스스로 가꾸어 간다.
-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자율적으로 의논하고 실행하는 것
- 학생이 학생을 위해 행동하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이 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
- 학생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
- 솔직히 잘 모르겠음
- 학생들끼리 회의도 하고, 의견도 모으고, 모임을 만들어 생활하는 것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학교를 이끌어가는 것
-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 학교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 바로잡는 것
-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방법
- 학생들이 하는 자립적인 활동
-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강요해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반영해 학교와 쌍방향으로 공존하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학교 계획에 의견을 모으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더 좋게 개선해 나가며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교에서만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행사 같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학교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 스스로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
-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
-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운영에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학생들과 관련된 일을 스스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수렴하여 일을 추진해보고, 배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
- 모든 학생이 다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요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을 같이 생각해 내는 것. 학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학생 자치 위원회가 모여서 답을 찾아내는 것
-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의 의견을 받아 그것을 반영하고 축제 같은 행사를 계획하는 것

-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
- 학교 그 자체
-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 학생들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것
- 학교에 학생을 위해 학생들의 생활은 더욱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
- 학생들이 원하는 자치 활동 취재를 학생 전체 회의를 토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 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
-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반영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 중학교의 문제나 행사를 정하는 것
- 학생들이 학교 일을 직접 회의해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
-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
-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 학교를 운영하고 기획하는 활동
- 학교를 대표하는 몇 명의 학생 대표들이 모여 하는 자치회의
- 학생들이 학생을 위해 서로 의논해 더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여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것
-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의 일을 결정하는 것
- 학생들이 작은 사회에서 자치하는 것.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
-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이 노력하고 희생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것
- 학생이 주인이 되어 공동체인 학교를 이끌어가는 과정, 결과. 즉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임원으로 참여하고 학생의 인권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활동하는 것
- 학교 학생들을 위해 불편함을 없애고 편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 작은 정부
-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것, 학교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학생회가 대신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필요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함
- 학교의 주인이자 학교를 이루는 사람, 학생이 직접 학교를 수정하고, 학생과 교사의 편의를 위해 수정하는 과정을 학생자치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으로서 학생들의 대표가 되어 학교에 의견을 내고 변화시키는 곳
- 학생자치란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토의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함
- 학생들끼리 회의하고 논의하는 것
- 학생들을 도와주고 꾸며나가는 것
- 학생들이 모여서 스스로 일을 하고 해결하고 많은 걸 해내면서 성장하는 그것으로 생각함
- 학생들끼리 하는 모임이나 회의라고 생각함

- 학생들의 불편한 점을 경청하여 그것을 해결하고 학교의 불편한 점 등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 스스로 학교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것
- 학생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여 어떤 활동을 벌이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 학교의 주인이 말로만 학생이라는 것이 아닌, 정말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
- 학생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학교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은 그것으로 생각한다
- 전교생을 관리하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것
- 학생들의 권리
- 회의 연습
- 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모든 일을 기획하고 함께 만드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이루어나가는 것
- 학생이 스스로 학생들을 이끌어 모두가 원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학교를 만들어가는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을 대표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학생자치!!
- 학생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학교의 주체가 되어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학생자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의 학교는 학생자치의 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개척하는데 힘이 들지만, 자치하며 많이 성장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의 학생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를 이끄는 것
- 학생들이 주도하여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것
-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 힘든 학생을 도와주고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 학생자치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나눈 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지 알려주는 곳
-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힘으로 우리의 학교를 더 빛나고 멋지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땅에 씨앗을 심어주는 것뿐 그것을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는 학생의 힘으로 더 탐스럽고 아름다운 식물을 만드는 것이다
- 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 학교의 여러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편하고 좋도록 만드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표하여 회의하며 학생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더 좋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학생자치라 생각합니다.
-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한다.
- 학생들이 모여 자치 활동을 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추가하는 학교(학생들)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다른 학생들보다 더 봉사하고 학교를 좀 더 다니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학생자치라 생각한다.
- 학생들이 자기가 원해서 학생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거나 학교 측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교의 문제점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자치는 학생들끼리 같이 토의하고 토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 인권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 자치란 자기 스스로(학생 스스로) 임하는 것
- 학생이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대표가 되어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원하는, 만족하는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생활을 만드는 구성회
- 학생들이 모여 학교에 대해 의논하는 것
- 학생들만으로 이끌어 가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 학교 안의 작은 정치
- 학생들끼리 스스로 “학교“라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 각 학년의 목소리를 모아 의견을 수용, 조정하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학생자치라고 생각한다. 학생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만드는 것
- 학급, 학교를 위해서 학교의 규칙을 만들고 바꾸는 일을 하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대신 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활동하고 학생회가 학생의 대표로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들을 위한 활동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을 꾸리는 것
- 선생님과 학생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 잘 모른다.
-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며 학교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 학교의 학생들을 대표하여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봉사하는 것
-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 캠페인도 하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
-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 계획이나 행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
-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들로 학교의 정책이나 이벤트를 채우고 바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
- 학생들에게 필요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실행해 주는 것
- 학생 스스로 즉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자치란 학교 안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대표해서 모여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학교를 꾸려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하는 것.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는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에게 학교를 위해 정치할 기회를 주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직접 회의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성장하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학생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거나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
- 학생이 본인 스스로 나서는 것
-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대표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수렴 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여 나쁘지 않다면 교직원들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학생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교육을 듣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즐기고 경험하는 것이다.
-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 학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 학생 스스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내고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들을 모아 학교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같다
-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조언을 주되 학생회의에 개입하는 것은 학생자치가 아니라고 본다.
- 학교에서 누구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좀 더 편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학교 내의 학생 집단으로서 학생들의 말을 대변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실천해 나가는 것.
-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학교의 고칠 점을 개선하고 탐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민주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매체
-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며 더욱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디딤돌 같은 역할이라 생각한다.
- 학생 중 학생 대표를 뽑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것. 모범적인 태도
- 학생회의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
- 학생들이 학교를 바꾸어 나가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점이나 학교에 부족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생을 대표해 활동하는 것
- 학생자치란 학생들이 학생회가 되어 학교의 운영방식이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토의하고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스스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행사를 하고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
- 학생들에 의해 학급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나가는 것
-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단체이다
- 학생들이 이끄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생활자치.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학교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교를 규칙을 지키며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
- 학생들끼리 스스로 학교의 부족한 점, 보충할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 학생들이 스스로 조를 만들어 거기서 나온 의견을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자치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활동들을 계획, 운영해 나가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더 학교에 편안하고 쾌적하게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
- 학교를 더 좋게 나가는 회의를 하고 학생 개인마다 다른 의견을 모아 모든 학생이 편안할 수 있게 만

들어가는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
-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행위
- 학생회 스스로 모두를 위한 학교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
- 학생들이 직접 회의, 토론하며 의사를 결정하는 것
- 학생들이 모여서 행사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각하는 곳
- 학교를 대표로 학교 운영 축제 등등 학생을 위주로 축제와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모여 대대로 자치를 펼치는 그거로 생각한다. 학생들끼리 무엇을 구성하고 짜고 만들어내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어 학교생활을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학생들이 인정하고 뽑아주는 것
- 학생들끼리 학교의 운영방식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 토의, 해결하는 거로 생각함
- 학교의 행사, 현장 체험 학습, 캠페인, 급식 그 외에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각 학년의 학생들이 모여 학생들의 의견을 두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 학생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 학생들끼리 행사 등에 문제에 관해서 해결방안을 토의하는 것
-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점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하기 위해 하는 활동
-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 학생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도 자치를 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일을 회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4-2. 학생자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응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학생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li> <li>▪ 조금 더 학생자치를 배워서 조금 더 나아가 학생들만 모여 의논하고 다가갔으면 좋겠다.</li> <li>▪ 선배와 후배 사이(보통 1학년과 3학년이 안 친한 경우가 많다)</li> <li>▪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사이</li> <li>▪ 자유롭지 않은 학교</li> <li>▪ 너무 심한 교권 침해나 너무 심한 학생 체벌(적당한 선 마련)</li> <li>▪ 학생들끼리의 뒷담, 따돌림 등.</li> <li>▪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li> <li>▪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들을 최대한 들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li> <li>▪ 학생들의 대표, 즉 학생회장은 꼭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고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야 하고 선생님들도 꼭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이견을 조율하면 꼭 행복한 학교가 될 그거로 생각함.</li> <li>▪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반영해주시는 것, 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li> <li>▪ 학생들의 생각이 존중되는 것</li> <li>▪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서로 잘 화합해야 해서 학생들 간의 소통이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li>▪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했을 때 선생님들의 시선에 의해 하고 싶은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부분에서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li> <li>▪ 학생회 임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또한 학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li> <li>▪ 우리의 의견을 조금 더 잘 들어주는 것(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생회 임원을 신중하게 뽑는 것. 학생회 임원들을 존중해 주는 것(비 학생회 학생들이).</li> <li>▪ 학생들의 의견 반영하기(가능한 범위 내에서).</li> <li>▪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에 대해 더 많이 교육해야 한다.</li> <li>▪ 학생들이 활동을 기획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준다.</li> <li>▪ 학생자치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듯하다.</li> <li>▪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됐으면 좋겠다.</li> <li>▪ 지금도 정말 잘 실행되고 있지만 조금만 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기회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li> <li>▪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ul>

-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
- 소외되는 사람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학생회의 권한을 확장하고 예산을 더 증액하여 학생회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과 학교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 정기적인 회의
- 1학년도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년을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 제가 볼 때는 우리 학교의 학생자치는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 때문에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 범위가 작아요
- 학생들의 학생자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해결할만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 대표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것
-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회의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하고 그 결과를 관심이 있게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를 위한 학생자치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
-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에게 본인의 역할을 일깨워 주고 학생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학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
- 학생회에 대한 선생님들의 시선 개안.
- 아직은 잘 모르겠다.
- 학생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끄는 것이 부족하다.
- 학생회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변 시선을 가볍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좋겠다.
- 학생회 예산의 투명화, 학년과 관계없는 학생회 대표 선출권리
- 지금보다도 더 학생자치의 영향을 늘리고 더 많은 곳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 활동의 결과를 더욱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학생자치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서로의 인권을 중시해 주고 그 사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불평하지 말고 존중하자
- 학생끼리 주고받는 것
- 학년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 학교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나 학생 회의를 통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더욱 많이 연다.
- 익명으로 자신의 건의 사항, 생각, 의견 등을 전할 수 있게 소리함 같은 것을 만들고 이를 잘 관리해야 할 것 같다.
- 각 반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과정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도 받고
- 학생들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식으로 투표해 열어 모두가 동등하게 투표권이 주어진 뒤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 후배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문제점을 말할 수 있게 선후배 간의 관계가 두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꼭 날짜를 정해서 하는 학생자치의 모임이 아닌, 좀 더 자유롭게 문제가 생긴다면 점심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했으면 한다.
- 학생회에서 얘기한 주제와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의견이 채택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불편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쪽지를 넣을 수 있는 함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관리 회의 정도
- 많은 경험을 느끼게 하고 학생자치란 것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가르치고 진지하게 임하게 도와주며, 어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장, 부회장을 후배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
-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원을 징계, 성적 이유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자치회를 더욱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의 때 1학년, 2학년, 3학년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 제한의 벽이 높지 않았으면 한다.
- 교사, 교장 선생님이 학생자치회 말을 귀담아 주시고 의견 반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바라는 것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끼리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옆에서 선생님들께서 함께 도와주는 것
-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면 좋겠다.
- 그냥 지금처럼 학생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듯하다
-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생회 대표가 잘 이끌어가고 임원들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예산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산 부분에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다
- 학생들의 인식. 학생회 임원 중 간혹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인원이 없다 보니 들어온 경우가 있다가 (작은 학교라) 그래서 좀 대충하는 애들이 있다.

- 학생자치에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지나치게 관여하셔서 학생들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년 구분 없이 모두 모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예의를 지키며 학생자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는 것.
-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더 내야 한다.
- 학교행사(축제) 많이 하기
- 학생들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모두가 공평하도록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다.
- 학생자치를 위해 의견 우편함 같은게 필요할 것 같다.
- 학생자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야 할 것 같다.
- 학생회 임원들이 열심히 학교행사나 회의를 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기적으로 회의하는 빈도가 잦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 스스로 회의 진행 등
-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평소에 행실이 불량한 학생은 학생회 간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가 그저 친목동아리가 아닌 자력이 있는 학생들로 채워져 보다 더 좋은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가 아닌 다른 학생들의 불만이나 의견을 조금만 더 얘기를 들어본다.
- 아직은 없다고 생각한다.
- 중학교에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졸업을 한다 해도 바뀌는 것은 많이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학생회를 믿고 맡겨주면 좋겠다.
- 축제나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학생들이 잘 참여해야 한다.
-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참여 빼고는 없는 것 같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
-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을 처벌.
- 학생들의 의견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반영하기.
-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한 학생만 의견을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욱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성적 등 자기 능력을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정식 회의실을 마련해야 하고 좀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 임원이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또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나 행사를 빠른 기간 내에 실행하면 더 좋은 학생자치 회의가 진행될 것 같다.
- 좀 더 주기적으로 학생자치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
- 학생 임원들이 평소에 학생들의 개선할 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학생자치의 임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딱히 없다고 생각함.
- 지금으로선 해결할 문제가 딱히 없는 것 같다.
- 회의실 만들어 주는 것.
- 학생자치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 학년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
- 저희의 의견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 학생들이 많은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받아 반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학생회 안에서만 회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아닌 학생들도 학생회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회뿐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회장 같을 걸 하려는 자신감
- 학생들의 의견 반영 부족 정기적이지 못한 학생회 모임
- 우리 학교의 문제점 해결
- 일반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 누구나 모두 평등하게 기회를 받기
-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들을 수 있는 매개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이 생활하며 불편했던 일
- 자유
- 학교 학생들끼리의 의견을 잘 조율하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좀 더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학생회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모든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 많이 학생회를 한다.
-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 학생자치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생님과 교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 학생회실 설립
- 많은 학생이 참여하면 좋겠다.
- 학생회에 나온 내용들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한 달에 한 번 갱신해서 학생회에서 나온 말들을 게시판에 걸어서 전시하기
- 완벽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위원들의 참여율이 더욱 커져야 한다.
- 같이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학생회장의 말을 잘 듣고 같이 머리를 모아 토론한다.
-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서로의 의견을 묻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 학교의 대표인 학생회장이 학생의 의견을 더 열심히 수렴해야 한다.
- 학생자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외부 강사나 선생님이 학생자치에 관해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수업이나 활동 등에서 학생자치에 대한 강의나 설명을 더 해야 한다.
- 학생과 선생님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것
- 학생자치회를 학생들이 이어가는 당연한 것을 꾸중하지 않기(인권 바닥남, 교문 지도 왜 해요?)
- 학생이라 당연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 교복을 사회화라고 생각하지 않기(+공동체 의식)
-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만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줌(전체적으로 챙겨줘야 함)
- 교복 안 입으면 교내 봉사임(학생들의 개인 사정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음)->없어야 함
- 학생들을 예비 범죄자로 봄
- 당연한 권리 보장해주지 않음
-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견해가 존중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을 듣는데, 천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무슨 책임과 권리를 지라는지 모르겠다. 교복-교문지도 및 각 수업 시간에 검사하여 적발 시 징계, 휴대전화를 강제적으로 걷는다

- 학생들이 더 많은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믿고 의견을 내야 한다.
- 선생님과 학생 간에 더욱 원활한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 학생자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선생님들의 탄압을 없애야 한다.
- 선생님들이 학생자치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 준다.
- 학생자치의 권리
- 더욱 많은 의견을 낸다.
- 학생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인다.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서 고친다.
- 학급 회의를 통한 학생의 의견 반영 증진
- 조금 더 선생님들의 손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 학생의 자발성, 학생의 익명성, 선생님들이 학생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 교육한다.
- 참여를 더 많이 하도록 한다.
-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학생 의견을 지지해주고 학생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학생회에 더 많은 권리를 주어야 함. 무언의 압박이나 암묵적인 규칙 타파. 학생회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
- 조금만 더 소통하고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한다.
- “어린이가 뭘 안다고?” 라는 선생님들의 인식 개선
- 학생자치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필요
- 아이들 사이에서의 우월의식, 선민사상이 없어지도록 평균 교육을 해야 한다.
- 학생들이 학교의 주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선생님들의 개입이 덜 적극적이어야 함
- 학생들이 의견을 말하기 위해 학교 분위기가 좋아야 함.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야 함
-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
- 학생들끼리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필요함
-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는 귀를 열어주세요
-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학생 대표가 의견을 모아 선생님께 건의할 수 있게 해달라
-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도 학생자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이어야 함.
- 학생회를 많이 열고 일반학생들도 의견을 나누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됨

-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학생이 학생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어야 함. 지금은 너무 선생 말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필요함
- 학생의 의견 반영, 학생 참여 증가
- 조금의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의견 수리함 등을 봐야 할 거 같다.
- 학생자치 회의 결과를 좀 더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면 좋겠다.
- 예산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 대표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많은 학생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면 좋겠다.
-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용할 필요가 있다.
- 예산이 너무 적은 것.
- 학교에서 학생회에 특정한 행사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회의를 더 늘리고 선생님과 하는 회의(교무회의) 참여 늘리고 더 관심을 가진다.
- 학교에서 학생자치 담당 선생님과 대화의 통해 좀 더 민주적이고 바른 학생자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학년 의견도 자세히 반영해주기
- 회의하거나 할 때 모든 학생이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고 학년의 의견만 수용하지 말고 다른 학년 생각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 하나하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학생 차별이 없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한다.
-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 목소리 대변을 위해 학생 대표의 교무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 학급 회의를 자주 해야 한다.
- 예산이나 그런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
- 많이 소통하는 것
- 좀 더 많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
-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다.
- 돈 주세요 예산 부족
- 의논하기를 더 많이 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하고 많은 학생자치 홍보, 교육, 관심
- 학생 참여 유도가 필요함

- 학생자치에 대한 지원, 학생자치의 이해와 필요성 홍보
- 더 넓은 활동 범위와 더 많은 활동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 의견 적극 수렴
- 학급회의 결과를 학생회 회의에 전달하여 건의 사항과 불편 사항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의 의견을 잘 받아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차별 없이 학년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회의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만약에 언성을 높이면 그때 중재해주실 선생님 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
- 행사나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학생들의 의견이 틀릴 수 있고, 어리석은 수 있지만 맞는 의견도 있기에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힘이 있으면 좋겠고, 학생들의 의견에 귀담아줬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많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 학생들의 불편한 점 등을 경청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신중히 잘 받아들인다.
- 학생들에게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배부하여야 할 것이다
- 학생들이 선생님 손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기회 마련
- 학생들이 학생자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에게 학생자치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에게 자치 교육 시행, 충분한 예산 편성, 학교 내 학생을 위한 공간 늘리기
- 선생님, 어른들의 적당한 제재와 간섭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학생의 참여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 우리 학교에선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의 업무를 진행할 때 행정 부분이 원활하게 좋아지지 않나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실 출입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선생님들과 저희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 예산 계획 -> 학생들, 예산 집행->학생들×, 예산관리->학생들×
-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늘려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 만약 학교폭력 문제가 일어난다면 피해자를 도와준다. 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가해자의 목소리도 듣는다
- 인성이 바르지 못한 친구들에게 교육해주는 것
- 학생들에게 학교의 일에 대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더 많은 권리를 준다.

-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 사항들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더 반영하여야 한다 생각한다.
- 1, 2학년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자치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활동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확인해 개선하는 등과 학생들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활동 같은 것을 통해 학생들과도 가까워지면 좋겠다.
- 개인적 생각으로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
- 학생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실장과 부실장으로 이루어진 학생회가 아닌 본인이 원하여 이루어진 학생회에서 자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학생회를 이룰 때 투표로 이루는 것이 좋다고 본다. 또 그 자치에서 학교에서 낡은 부분 같은 공사에 대한 의견, 평소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회의하고 해결해야 할 것 같다.
- 선생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 것 같다.
- 모든 학생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예산을 공유하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것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활동이나 행사 등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좀 더 수렴되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낸다, 의견 받아 낸 것을 통해 회의해 결정한다.
- 학생회의 임원들이 모두 각자의 의견을 내서 조금 더 만족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의견을 내는 것
- 투표를 잘해야 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하려는 마음, 태도를 고취하는 것
- 학생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상황을 최대한 없애고 학생이 원하는 활동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넘어가는 것, (예:학교의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것, 학교 측면에서 부담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원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
- 딱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치위원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욕을 먹거나 눈치를 보지 않게 하는 것
- 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전하는 과정에서 착오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 많은 학생이 학생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학생이 지도력 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타당하다 싶으면 잘 들어주는 것. 이런 행동이 안되는 문제
- 학생자치회 활성화
- 학생들의 불만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회의 등을 자주 해서 해결하고 학교의 문제점, 선생님과 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
- 더 자주 모여 회의를 하거나 학생자치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
- 학생회 활동에 만족한다.

- 학생들이 진짜로 학생자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더 활발한 활동, 정기적인 회의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와 선생님들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라고 자부심을 품지 말고 학생들에게 부족하거나 이런 점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 부분을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 조금 더 학생자치를 활성화해 학생들의 의견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 학생자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딱히 없다고 생각한다. 매우 만족하는 중이다.
- 학생들의 의견을 더 물어보는 시간을 더 갖는다.
-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해야 한다.
- 교육보단 학생들만의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 학생자치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한다. 학교의 운영을 학생의 의견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수업.
- 학생자치를 위해 서로 비판하지 않고 편견과 오해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해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올바르게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긍정적인 문구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 학생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해야 하며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학생회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교직원들의 회의에 참여하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불만 등의 의견을 잘 수렴한다고 느끼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렴했으면 좋겠다.
- 너무 학교가 시키기만 한다. 우리에게 무언가 결정할 기회도 주지 않으며 단순히 결정된 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통보하듯이 말하기만 하며 조금이라도 학교 측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투표라는 명목으로 이미 결정된 답을 내놓는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 참여할 만한 체험이랄 게 너무 없다.
- 학생자치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장은 안되고 임원 정도로 중1 몇몇을 뽑아서 학년별로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 학교를 위해 선생님들께서 회의하시는데 학생자치 대표들도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큰 행사 같은 경우 선생님들 의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학생자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더해 정하면 더욱 나아질 것 같다
- 선생님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의견을 많이 내기 위해 학생자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자신들이 학생자치 임원이란 것을 명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자치에 임해야 한다.
- 학생자치 임원들을 학생들이 뽑고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투명하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자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학생회 임원을 전 학년으로 구성해야 한다.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휴대전화를 사용 문제, 급식, 매점 등).
- 예산과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이 학생자치의 일원으로서 학생이 원하는 점을 확고하게 개선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발언권과 학생자치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 모든 학생이 민주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은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한 수업이 건강한 학생자치에 필수적이다.
-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통과 회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작은 일이라도 여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식의 의견조사 체계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 교무회의에 학생들이 참석할 기회를 더 많이 거리낌 없이 주었으면 한다.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선생님께 전달하고 계획해나가는 쌍방향적 교류가 필요하다.
- 모든 학생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따돌림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 선생님들은 학생이 어리다고 학생의 의견을 마음대로 무시하지 않고 또한 학생들이 선생님께 거리낌 없이 학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선생님의 너무나 큰 개입 문제. 학생회 임원들이 서로 협동하여 학생자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 아무 교육이나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어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교육을 한다.
- 오직 선생님이 주도하여 일을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을 해결해야 한다.
- 학생자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학생회 임원이 더욱 노력하여 학생들이 학생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잘 귀 기울여주고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도 모두 다 참여하여 좀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장이 달마다 마지막 날에 그달 동안 요청받거나 의견을 받은 걸 선생님과 이야기한다.
- 학생을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더 잘 파악해야 한다.
- 학생들에게 학생자치회가 아닌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모으도록 학생회 회의의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 학생자치에서 얘기한 이야기를 못 들어서 불편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알 수가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 활동 홍보 성과 등을 공유, 학생들이 본인이 바꾼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으면 그냥 이름만 학생회로 하고 자치 활동 범위도 너무 작음
-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함

- 모든 학생이 학생자치회의 결과를 알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학생회에 들어가는 법(?) 같은걸. 공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 회의를 하고 한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줬으면 한다.
- 학생회를 듣지 않는 학생들을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회 임원을 조금 줄여서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피드백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더 활발하게 모아서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 학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학생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 우리 학교가 나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토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회의할 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3학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1, 2학년들이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생님이 학생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